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18 호 9 월 20일

평양 근로자사 1963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18 호 (232)
1963년 9월 (하)

차 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5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한 보고

최 용 건

(오래 계속되는 박수)

동지들!

조선 인민이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한 때로부터 15 년이 지나 갔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기들이 걸어 온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 행로를 회고하며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찬란한 투쟁 업적을 무한히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공화국 창건 15 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수)

나는 이 뜻깊은 민족적 명절을 맞이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전체 조선 인민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 인민은 오래 동안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은 말할 수 없는 간난 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오직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장구한 기간 영웅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자기의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 인민의 숙망은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후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빛나게 실현되였습니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북조선에서 낡은 일제 통치 기구를 철저히 파괴하고 인민 주권을 수립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잔재 세력과 봉건 세력을 청산하는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북조선에서 수행된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에 토대하여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전체 조선 인민의 거족적인 투쟁 속에서 창건되였습니다.

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 자신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국가입니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조선 인민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강유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 쥔 독립된 민족으로서 세계 무대에 진

출하게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고 기도하여 왔으며 마침내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조선 인민은 3 년간의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독립과 영예를 사수하였습니다.

전후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 밑에 짧은 기간에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였으며 천리마의 대진군을 전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되였으며 오늘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은 더욱더 장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우리 인민이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위대한 전취물이며 원쑤들과의 판가리 싸움에서 피로써 지켜낸 영광스러운 조국이며 자기들의 영웅적 로동으로써 건설한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자기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무한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공화국의 륭성 발전에서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어떠한 원쑤들의 침해로부터도 공화국을 사수하며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공화국의 국가 사회 제도의 불패의 생활력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세기적인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달성한 가장 위대한 승리는 공화국 북반부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하고 독립 국가의 튼튼한 경제 토대를 축성하여 놓은 것입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승리함으로써 생산력은 낡은 생산 관계의 구속에서 해방되였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는 영원히 청산되였습니다.

어떠한 나라를 불문하고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지 않고서는 완전한 자주 독립을 보장할 수 없으며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서 세계 선진 국가들의 대렬에 설 수 없습니다.

더우기 근 반 세기 동안이나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해방 후에도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우리 민족의 흥망과 조선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활적 문제였습니다.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대치하여 우리의 혁명 진지를 반석 같이 다지며 조국 통일의 위업을 힘 있게 추진시키며 통일되고 독립되고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온갖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 경제 건설의 로선을 관철시켜 왔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를 축성함으로써 세기적 락후성과 빈궁을 청산하고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자기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로동 계급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우리 공업은 류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습니다.

공화국 창건 후 15 년 동안에 절반 이상의 시일이 전쟁과 파괴된 경제의 복구 사업에 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업 생산은 14.5 배나 장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공업은 해방 후 첫 11 년간에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업 제품을 단 한 해 동안에 생산하고 있습니다.(박수)

우리는 나라의 경제적 자립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집중함으로써 전력 공업, 석탄 공업,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등 기간적 부문들을 다 갖춘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 기지를 축성하여 놓았습니다.

우리의 중공업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였으며 국내의 자연 부원에 의거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 중공업은 114억 키로와트시의 전력, 1천 320만 톤의 석탄, 120만 톤 이상의 선철과 립철, 105만 톤의 강철, 78만 톤의 화학 비료, 237만 톤의 세멘트를 생산하였습니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1962년에 그 생산액은 1948년에 비하여 45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대형 공작 기계,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 기계 설비들을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기계 설비들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써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박수)

이리하여 우리는 제 힘으로 생산한 연료, 동력, 자재 및 기계 설비들로 민족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주로 자체의 중공업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튼튼한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여 놓았습니다.

수 많은 대규모의 현대적 경공업 공장들과 함께 전국 도처에 2천 여 개의 중 소 지방 산업 공장들이 건설되고 경공업의 튼튼한 원료 기지가 조성되였습니다.

1962년에 방직 공업은 1948년에 비하여 31 배로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은 12 배로, 문화용품 및 일용품 공업은 62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방직 공업은 2억 5천만 메터 이상의 각종 직물을 생산하였습니다.

15 년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는 소비품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나라의 모든 상점들을 국내산 상품으로 채우고 있으며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박수)

공업과 함께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지 않고는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알곡 생산을 증가시켜 식량을 자급 자족하는 것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당은 승리한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새로운 농기계와 영농 기술을 부단히 도입함으로써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강화하였습니다.

1962년에 관개 면적은 1948년에 비하여 6 배로 장성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2.6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년간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강력히 추진됨으로써 현재 농촌에서의 뜨락또르 대수는 15 마력으로 환산하여 1만 7,500 대에 달하였으며 이 밖에도 수 많은 현대적 농기계들이 도입되여 농민들의 고되고 힘든 로동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1962년에 알곡 생산은 1948년에 비하여 1.9 배로 장성하였으며 공예 작물, 채소, 과실, 축산물 생산도 급속히 증대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식량을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으며 장차 알곡을 더욱 풍족하게 생산하고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박수)

독립되고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립적 경제 토대와 함께 국가와 경제를 능히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자체의 민족 간부를 가져야 하며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인민 교육을 발전시키고 민족 간부를 양성하며 과학 기술과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당과 정부의 거대한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중등 및 고등 기술 전문 학교와 대학이 대대적으로 증설되였습니다.

각급 학교수는 1948년의 4,240 개로부터 현재는 9,191 개로 장성하였으며 그 중 대학은 11 개로부터 97 개로 장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255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학생 수는 20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된 후 15 년 동안에 우리는 국내의 대학과 전문 학교들에서 24만 명 이상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진출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자체의 민족 간부의 대부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우리 간부들의 힘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를 훌륭히 꾸려 나아갈 수 있게 되였습니다.(박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을 가진 우리의 민족 문화와 예술은 인민 정권하에서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철저하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아름답고 건전하고 혁명적인 문학 예술로서 인민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투쟁을 고무 추동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였습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고 민족 경제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은 부단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1962년에 국민 소득은 1946년에 비하여 8.7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지금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 수준은 그들에게 안착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주택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여 인민들의 주택 조건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10 년 간에만도 도시와 농촌에 3천 290만 평방메터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여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혜택도 해마다 증대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는 각급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고 있으며 대학 및 전문 학교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유급 휴가제와 사회 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국가 및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되는 유치원과 탁아소들에서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적이며 선진적인 보건 제도인 전반적 무상 치료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봉사는 날로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인민 보건 사업이 강화되고 인민들의 전반적 생활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1962년에는 해방 전에 비하여 인구의 사망률이 근 절반으로 감소되였으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0 년이나 연장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실업자도, 류랑인도, 걸인도 없으며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자기의 의식주에 대해서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병치료에 대해서도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일하고 배우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이 모든 것은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거대한 배려의 뚜렷한 표현이며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증시하는 것입니다.

새 조국 건설에서 우리가 달성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창조적 로동의 결실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점령하지 못 할 어떠한 요새도 없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는 우리 인민은 오늘 더욱 훌륭한 미래를 명확히 내다 보면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참말로 우리 앞에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7 개년 계획의 전망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이미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이미 축성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더욱 정비되고 강화되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기술 문화 수준이 제고되였으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계속 앙양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거대한 앙양을 일으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인 천리마 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킴으로써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킬 것이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서는 중공업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돌려야 합니다.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선행시키고 기계 제작 공업과 화학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우리의 중공업을 전반적으로 더욱 정비하고 보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중공업은 앞으로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훌륭하게 복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인민 소비품 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난 우리 인민은 지금에 와서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민들의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물질 기술적 토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특히 금속 제품, 수지 제품을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 목재 가공품, 유리 및 도자기 제품, 초물 제품 등 다양한 일용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더욱 문명하고 유족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박수)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여 논 면적을 계속 확장하며 농촌 경리의 기계화와 화학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농촌 기술 혁명을 수행하며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킴으로써 알곡을 풍족하게 생산하고 특히 벼의 비중을 훨씬 더 높일 것이며 축산업을 비롯한 농촌 경리의 다른 모든 부문을 더욱 높은 수준에 올려 세울 것입니다. 7 개년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 공화국은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될 것이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것으로 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사회주의 건설의 휘황한 전망에 무한히 고무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 밑에 더욱 높은 열성과 창조력과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7 개년 계획을 반드시 성과적으로 완수할 것이며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 혁명이 수행되고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추진됨에 따라 공화국의 정치적 기초와 경제 토대는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우리의 국가 사회 제도는 전

례 없이 공고화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공화국은 유일한 사회주의 경제 체계에 립각하고 있으며 위력한 사회주의 공업과 공고한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착취 계급도 피착취 계급도 없습니다. 사회주의의 토대 우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동자, 농민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전체 인민의 확고한 정치 도덕적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국가는 바로 이와 같은 로동 계급과 농민의 전투적 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고 있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국가입니다.

(우렁찬 박수)

이 국가는 혁명을 반대하는 극소수의 적대 분자들과 제국주의의 주구들에 대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자기의 인민들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우리 당은 국가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혁명 기지를 와해시키려는 인민의 원쑤들의 파괴 활동을 걸음마다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 체계와 지도를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우리 국가 사회 제도의 우월성을 고도로 발현시키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시키는 데 거대한 관심을 돌려 왔습니다.

특히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수립된 결과 모든 사업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고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군중의 적극성을 발동시키는 우리 당의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이 더욱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습니다.

당은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꾸준히 진행하였으며 계급 투쟁의 시련을 겪지 못한 새 세대의 청년들을 맑스-레닌주의의 계급적 관점과 로동 계급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우리 당의 혁명 전통으로 교양하는 사상 사업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자각적인 사회주의 건설자로 교양되고 있으며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 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사회는 굳게 단합되고 혁명적 열정으로 충만된 하나의 전투 집단으로, 화목하고 명랑하고 생기 발랄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되였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 인민이 자기의 독립 국가를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멸시 당하고 억압당하던 고난의 력사는 영원히 과거로 되였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착취와 압박이 없는 근로 인민의 진정한 조국,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한 강유력한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우리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류례 없는 번영의 시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어떠한 힘도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파괴할 수 없으며 공화국의 기치 밑에 단결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된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승리와 영광에 찬 위대한 새 생활이 건설되고 있는 반면에 미 제국주의의 강점 하에 있는 공화국 남반부는 치욕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 기지로 전변되였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말살되고 가장 야수적인 테로와 폭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벌써 3 년째 극단적인 군사 파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 운동은 전대미문의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의 경제 명맥을 탈취하였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 침략적 목적에 완전히 예속시켰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 식민지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공업은 전면적으로 파괴되였습니다.

더욱더 심각하여지는 원료 및 자금의 부족과 미국 상품의 압박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민족 공업은 부단히 파산 몰락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18 년이 지난 오늘 남조선 공업 생산은 일제 시기의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농업도 말할 수 없이 황폐되였습니다. 남조선 통치자들은 농촌에 투자는 하지 않고 바닥이 나도록 농촌을 긁어 냈습니다.

산림이 황폐되고 관개 시설이 파괴된 결과 남조선 농토의 절반 이상이 복구 개간하지 않고서는 수확을 낼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하였습니다. 심한 토지의 부족과 가혹한 봉건적 및 식민지적 착취로 인하여 농민 경리는 극도로 령세화되였습니다.

1962년에 남조선의 알곡 생산은 그 전해에 비하여 근 30%나 감소되였으며 금년에 농사 형편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전면적인 파탄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의 부단한 파산과 조업 단축은 이미 오래 전에 수백만에 달한 실업자의 대렬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끝없는 물가의 폭등과 조세 수탈의 강화는 인민 생활을 빈궁의 밑바닥에 몰아 넣었습니다.

지금 무서운 기근이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고는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18 년간에 걸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와 그에 추종한 남조선 지배층의 매국 정책은 조국 남반부를 죽음의 땅으로, 인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수습할 수 없는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뒤흔들리고 있는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려고 테로와 폭압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술책

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민정 이양》으로 남조선 사태가 개변될 것 같이 인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민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그들은 벌써 10 년 이상 《민정》이 가져다 준 온갖 재난과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군정》을 《민정》으로 바꾸는 것으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책동으로도 남조선에서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으며 새 생활과 새 정치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군사 파쑈 《정권》에 대한 남조선 인민 대중의 증오와 항거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에서는 외세 의존을 배격하며 자생, 자결과 경제의 자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 있게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의 사활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 민족의 념원에 부합되는 이 애국적 주장을 지지합니다.(우렁찬 박수)

지어 현 남조선 《정권》의 일부 당국자들까지도 자립 경제의 건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말이 인민 대중의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나온 것인지 혹은 민족적 량심에서 우러 나온 것인지 똑똑치 않지만 어쨌든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남조선 경제가 여지없이 파괴되고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며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고 있는 이것이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남조선 경제를 예속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을 그대로 두어 두고는 남조선에서 정치적 자주와 경제의 자립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그들의 식민지 통치를 청산함으로써만 남조선은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의 길에 들어 설 수 있습니다.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말로만 자립 경제의 건설에 대하여 떠들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계속 외세에 의탁하며 제국주의의 《원조》를 끌어 들이는 길로 나아간다면 그들은 사태를 조금도 개변시키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남조선 인민들을 더욱 처참한 지경에 빠뜨릴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립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 합작을 실현해야 하며 전 민족의 힘을 동원해야 합니다. 남북이 합작하고 협력하는 외에 남조선이 재생할 수 있는 다른 출로는 없습니다. 남북의 합작과 협조를 실현함으로써 북조선 공업 지대와 남조선 농업 지대 간의 련계를 회복하며 전국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남북 조선의 전체 경제력을 동원한다면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먼저 건설하고 통일한다》느니, 《승공을 위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북 간의 어떠한 협조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는 도리가 없으며 그것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나아가서 전 조선을 침략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리할 뿐입니다. 남조선이 재생하기 위하여서는 외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지금부터 남북의 힘을 합치면서 경제의 자립을 도모하는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먹고 먹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민족이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배격하고 전 민족이 힘을 합쳐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도탄에서 구출하는 데 있습니다.

남북이 합작하지 못 할 어떠한 리유도 없습니다. 남북 간에 현존하는 정치적 견해와 사회 제도의 차이는 우리가 민족의 사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합하고 협력하는 데 장애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미 제국주의의 주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민족적 력량이 반미 구국 통일 전선에 단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서 공산당과 자산 계급의 정당이 합작하여 외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한 력사적 사실을 알고 있으며 오늘도 공산당과 다른 정당들이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 민족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4월에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김 구 선생을 비롯한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력사적인 남북 련석 회의에 모여 앉아 반미 구국 대책을 세웠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 자산 계급의 대표자들이 외적을 반대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서 투쟁하지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남북 협상의 기회를 조성하며 남북의 합작을 실현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합니다.

남북이 합작하여 민족의 운명을 타개하며 남반부 동포들을 사경에서 구원하는 것은 잠시도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3천만 전 민족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집권자들과 진정으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국가의 장래를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심사 숙고하여야 하며 전 민족의 이 절박한 요구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 누가 끝끝내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반공》이니, 《승공》이니 하면서 계속 민족의 화목과 단결을 파괴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진창 속에 짓밟으려 한다면 그는 결코 리 승만의 운명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인민들은 정치적 자주와 경제의 자립을 위하여, 남북의 합작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전체 인민들과 애국적 인사들은 반미 구국의 기치 밑에 북조선 인민들과 손을 맞잡고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 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국 침략 군대를 몰아 내지 않고서는 조선 인민은 잠시도 편안히 살 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한다》는 구실 밑에 자기 군대를 계속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가리기 위한 방패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 조선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저들의 남조선 강점을 정당화할 어떠한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군대는 남조선으로부터 물러 가야 하며 조선의 통일 문제는 조선 사람들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남북이 호상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의 군대을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합니다. 군비를 축소함으로써 남북 조선이 다 같이 민족 경제의 건설과 인민 생활의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무력을 축소하고 남북 합작이 실현되면 남조선은 민족 보위에 필요한 무력을 외국의 군사 원조 없이도 민족 자체의 힘으로 능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합작과 남북 간의 평화 협정의 체결은 남북 간의 불신과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민족적 단결과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새 국면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를 통하여 실현되여야 합니다.

자주, 평화, 민주주의—이것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 부동한 원칙입니다.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우리의 민족적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극동과 아세아에서의 평화의 리익에 완전히 부합됩니다. 전체 조선 인민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우리의 이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주장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박수)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의 반동적 매국 세력만이 우리의 이 원칙적인 방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의 온갖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 병사, 청년, 학생, 지식인, 애국적 자본가 등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단결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미제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에 일어 서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힘으로도 조선에서 무너져 가는 식민지 제도를 구원하지 못 할 것입니다.

남북 조선 전체 애국적 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격파되고야 말 것이며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은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동지들!

전체 조선 인민의 영광스러운 조국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60만 재일 동포들은 공화국의 륭성과 발전에서 자기들의 행복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며 무한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벌써 8만 여명에 달하는 재일 동포들이 자기들의 사랑하는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품안에 돌아 와 행복한 새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박수)

오늘 재일 조선 공민들은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중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이 정당한 투쟁은 일본 각계의 민주 단체들과 진보적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재외 공민들의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임무로 간주하고 있는 공화국 정부는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실현을 위한 재일 동포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 성원하며 그들의 정당한 요구가 지체 없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우렁찬 박수)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은 재일 동포들의 침해할 수 없는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 동포들의 이 정당한 요구는 일본 정부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자기의 부당한 립장을 버리고 조국으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하루 속히 실현되도록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오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는 전례 없이 공고화되였으며 전반적 국제 정세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 위업에 유리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전쟁 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도처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 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 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하여 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가면 밑에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피압박 민족들과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진압하려고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제국주의자들은 극동과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자기들의 원자 및 로케트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각종 도발 행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제는 대만을 계속 강점하고 장 개석 도당을 사촉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 책동을 굶임 없이 감행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을 규합하여 발광적인 반중국 깜빠니야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의 네루 정부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면서 그들을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에로 사촉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남부 월남에서 침략 전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타오스에서 또다시 국내 전쟁을 도발하려고 획책하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를 재무장시켜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몰려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이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가장 흉악한 원쑤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부분적 핵 시험 금지 조약을 연막으로 하여 핵 무기 시험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발광적으로 자기의 동맹국들에 핵 무기를 전파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핵 무력의 우세를 확보할 데 대하여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세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반제국주의 력량과 평화 애호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결속시켜 도처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의 침략과 전쟁 도발 음모를 분쇄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 왔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우리의 국방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미제의 침략 책동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 위업을 달성할 것이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 초소를 굳건히 수호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 속에서 더욱더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민족 해방 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운동과 함께 우리 시대의 위대한 반제국주의 력량이며 세계 평화의 강력한 요인입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것은 전체 사회주의 국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의무이며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의무입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조선 인민은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며 모든 식민지 및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시종일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느고 딘 디엠 도당을 반대하는 남부 월남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과 조국 통일을 위한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 인민은 미제와 국내 반동의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고 민족적 통일과 평화와 중립을 수호하기 위한 라오스 인민의 정의의 애국 투쟁을 지지하며 영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의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 음모를 반대하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와 국내 독점 자본을 반대하며 독립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중립을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합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영웅적 꾸바 인민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우렁찬 박수)

조선 인민은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그들과 굳게 단결하여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렁찬 박수)

우리는 또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렁찬 박수)

제국주의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파탄시키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과 단결, 협조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것을 자기 대외 정책의 확고 부동한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우렁찬 박수)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합니다.

모쓰크바 선언과 성명에 명확히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는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동지적인 호상 지지와 호상 원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형제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일방적 의사를 강요하거나 또는 당들 간의 의견 상이를 국가적 관계에까지 확대하여 형제 국가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이러저러한 형제 나라를 고립시키고 우리 진영에서 떼여 내려는 것과 같은 행동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지 행동으로써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선언과 성명에 규정된 형제 국가들의 호상 관계에 관한 규범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만 우리 진영의 통일은 수호될 수 있으며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에 부무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과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이러한 파괴 책동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의 자유와·독립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 정상적인 국가적 관계를 설정하며 우호적·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 정책의 시종 일관한 방침입니다.

지난 기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기니아, 말리, 알제리아, 아랍 련합 공화국, 예멘 아랍 공화국, 우간다 등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적 독립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이 나라들과 우리 나라와의 우호적인 관계는 부단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비르마, 캄보쟈, 쎄일론, 이라크, 소말리, 우루과이 등 많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 우리 나라의 경제 문화적 협조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모든 아세아,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국가적 관계와 경제 문화적 협조를 더욱 발전시키며 그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박수)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박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우렁찬 박수)

동지들!

조선 인민은 공화국의 기치 밑에 지난 15 년 동안 영광에 찬 투쟁의 길을 걸어 왔으며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독립되고 힘 있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되였으며 날로 더욱 번영하고 있습니다.(우렁찬 박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자유와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달성하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구현하였으며 조국 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 인민의 투쟁에서 강력한 성새로 되였습니다.(우렁찬 박수)

조선 인민은 공화국의 불패의 위력을 확신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의 담보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가로 막을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우렁찬 박수)

모두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렁찬 박수 오래 계속)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고조를 위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회의는 당면한 혁명 과업을 토의하고 전체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당 앞에 중요한 력사적 과업이 제기될 때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전체 당원들을 궐기시키고 군중을 발동함으로써 그것을 능숙하게 해결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으로 되여 있다.

당은 1952년 말에 당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여 그들을 원쑤를 격멸하는 결정적 투쟁에로 조직 동원함으로써 아이젠하워의 발광적인 신공세를 격파하였고 1958년 9월에도 편지를 보내여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대고조를 한 계단 더 높이 추켜 세웠다.

금번의 편지는 중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전 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 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호소하고 있다.

당의 이 호소는 일편 단심 당과 혁명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격동시키고 있으며 창조적 적극성과 혁명적 열의를 계발하고 있다.

새로운 고조는 현 단계의 성숙된 요구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한 고지를 점령하고 그 진지를 공고히 한 토대에서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새로운 진군을 개시하는 장엄한 시기에 들어 섰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의 령도 하에 우리 인민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원칙에 의거하여 짧은 기간에 전쟁의 상처를 가셔 내고 제 1 차 5 개년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첫 고지—사회주의의 기초 건설 고지를 점령하였다.

우리 인민은 5 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벽두부터 천리마의 진군을 개시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고조를 이룩하였다.

이 시기(1957~1960년) 우리 나라 공업은 년 평균 36.6%라는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농촌 경리에서도 일대 비약이 이루어졌고 건설에서도 《평양 속도》, 《비날론 속도》가 창조되였다.

바로 이런 템포로 달림으로써 우리는 제 1 차 5 개년 계획을 공업 총 생산액적으로 2 년 반에 수행하였으며 우리 조선은 《천리마의 나라》로 불리우게 되였다.

당은 1960년을 완충기로 설정하고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균형을 조절하였으며 채 꾸리지 못한 부문들을 정비 보

강하면서 이미 점령한 고지를 공고히 다지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7 개년 계획의 상반기 과업을 수행하는 첫 3 년간에 우리는 계속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고 그를 정비 보강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경공업 기지를 강화하였고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비약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하여 놓았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바야흐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고 있다. 우리는 지금 축성된 토대에 근거하여 모든 일을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 섰다.

오늘 우리에게는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생산 보장할 수 있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경제가 있다.

우리의 중공업은 이미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퇴치하고 전력, 석탄, 금속, 화학, 건재, 기계 제작 등 기간적 부문들을 모두 갖추었다.

작년에 공업 부문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달하였으며 기계 설비의 국내 자급률은 92%를 넘어 섰다.

이것은 우리의 중공업 기지가 이미 튼튼히 구축되였으며 그것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부단히 장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공업의 지원 하에 경공업 기지도 튼튼히 축성되였다. 우리에게는 지금 발전된 방직 공업이 있으며 다양한 식료품 공업과 일용품 공업이 있다.

지난날 소비품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던 우리가 오늘은 우리 손으로 만든 소비품으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사회주의 농촌 경리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관개 체계가 확립되고 현대적 기계들과 새로운 영농 방법이 도입되여 해마다 농업 생산이 장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식량을 완전히 자급 자족하고 있으며 공업 원료를 기본적으로 충당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인민들에게는 날마다 새 문화 주택이 차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으며 우리의 살림은 부단히 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할 수 없다.

인민들은 지금 더 좋은 문화 주택에서 일체 가구들과 문화 기재들을 다 갖추어 놓고 풍족하고 편리하고 문화적으로 살 것을 념원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인민들의 이 념원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게 되였다.

인구 1 인당 중요 공업 제품과 알곡 생산량에서 우리는 세계 선진 국가의 수준에 급속히 접근하여 가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우리는 제 힘으로 제 살림을 훌륭히 꾸릴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되였으며 일용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수 있게 되였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고조는 바로 현실 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우리 인민의 절박한 념원이다.

또한 오늘 남반부에 조성된 혁명 정세가 이것을 요구한다.

남반부 인민들은 벌써 18 년째나 미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 신음하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략탈 정책으로 민족 경제는 여지 없이 파탄되고 인민들은 전대미문의 생활고에서 허덕이고 있다.

수 많은 겨레들이 무참히 쓰러지고 있으며 이국 땅에 종신 노예로 팔려 가고 있다.

동족의 이 참상을 우리가 어찌 앉아서 보고만 있겠는가!

남반부 인민들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 보고 있다.

그들은 북반부에서 이룩된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에 고무되면서 반미 구국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미제의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자립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운이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으며 위정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여 우리의 위력을 일층 강화하고 북반부를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킨다면 조국 통일 위업에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우리는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힘차게 고무 추동하여야 하며 남반부 인민들을 구원하고 파괴된 남반부의 경제를 복구할 물질적 준비를 더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야 한다.

오늘의 국제 정세가 또한 우리에게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고조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멸망하여 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하여 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미제는 《평화》의 가면 밑에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극동과 아세아에 침략의 예봉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 미제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 각종 신형 무기를 끌어 들이면서 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 행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한편 미제는 사회주의 진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찌또를 비롯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더욱 로골적으로 제국주의에 아부 굴종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파괴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당들을 중상 모해하며 그 나라들의 사회주의 건설을 극력 방해하고 있다.

제반 사정은 우리에게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항상 견지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경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오직 우리가 항상 준비된 태세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경제력과 방위력이 강력할 때만이 원쑤들의 준동을 격파할 수 있다.

1957년에 우리가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반쏘 반공 깜빠니야와 반당 종파 분자들의 준동을 분쇄한 것처럼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맑스-레닌주의에 립각한 우리 당 정책의 불패의 생활력을 증시하며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준동을 철저히 격파해야 한다.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대고조는 바로 이와 같은 혁명 정세의 긴절한 요구이다.

우리의 목표는 세기적 숙망의 완전 실현

당 중앙 위원회가 보낸 금번의 편지는 우리가 지난 기간 축성한 토대에 기초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최근 1~2년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돌려지고 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당은 이제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문화적으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을 완전히 실현하려고 한다.

오랜 세월 천대 받고 못 살던 우리 인민, 제 나라 제 땅의 번영을 위하여 힘과 재능을 다 바쳐 싸우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이 남보다 못 하지 않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당은 우리의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여 영웅 조선의 이름이 세계의 선진 국가 대렬에서 빛나게 하려 한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것은 수천 년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꿈꾸어 오던 세기적 숙망이다.

이 력사적 과업이 바로 우리 세대, 우리 로동당원들에게 부과되였다. 이보다 더 보람 있고 영예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조상의 제'상에 이밥 한 그릇 변변히 떠 놓지 못 하던 우리 인민이 1년 내내 이밥에 고기'국을 먹게 되고 대대손손 오막살이에서 신음하던 우리가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문명하게 살며 엄동설한에도 베적삼, 토스레를 면하지 못 하던 우리 인민이 철따라 비단옷을 갈아입게 된다.

이 얼마나 흥분과 격동을 자아내며 새 힘을 용솟음치게 하는 일인가!

당은 지금 이 력사적 과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투쟁에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는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는 이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

우리의 기본 과업은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적 경제 토대에 기초하여 중

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킬 준비와 조건을 갖추며 중공업을 더욱 보강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며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켜 인민 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하며 나라의 경제력을 일층 강화하는 데 있다.》(전원 회의 결정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업은 도처에서 인민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살림을 더욱 알뜰하고 문화적으로 꾸리기 위하여, 우리의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모든 부문, 모든 곳에서 전 인민적 운동으로 소비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금속 제품, 수지 제품을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 목재 가공품, 유리 및 도자기 제품, 초물 제품 등 다종 다양한 일용품을 도처에서 생산하며 라지오, 텔레비존, 축음기, 사진기, 시계, 학용품, 운동구 등 문화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을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하게 모든 면에서 풍족하고 편리하고 문화적으로 꾸리게 하며 우리의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을 모르고 자라도록 해야 한다.

입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질 좋고 다양한 천을 더 많이 짜야 하며 편직물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며 피복 공업을 발전시키며, 맵시 있고 편리한 기성복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먹는 문제 해결에서 식료 가공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축산물과 수산물, 과실과 채소를 가공하여 사철 떨구지 말고 풍족하게 공급하며 어데서나 모든 사람이 시원한 청량 음료와 과즙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상시 세 끼 이밥을 먹도록 하자면 알곡 생산을 더욱 증대시키고 벼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관개 수리 체계를 더욱 확대하고 논 면적을 확장하며 밭벼를 더 많이 재배하며 알곡을 위주로 하는 2 모작 체계를 광범히 도입해야 한다.

고기, 계란, 우유를 비롯한 축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며 수산업을 발전시켜야만 우리가 끼니마다 고기'국을 먹을 수 있다.

농촌에서 돼지를 대대적으로 기르며 닭, 오리, 게사니 등 가금들과 소, 양, 토끼 등 초식 동물을 더 많이 사양하며 바다와 호소에서 양식 양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전개하여 어획고를 부단히 장성시켜야 한다.

주택 문제는 아직도 긴장되고 있다. 건설에서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며 건설 작업을 기계화하며 《평양 속도》, 《비날론 속도》를 창조한 우리 건설자들의 영웅적 기개를 다시 한 번 발휘하여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 건설을 쾌속도로 다그쳐야 한다.

그리하여 자유롭고 행복한 이 땅에서 수천 년래의 오막살이의 마지막 흔적을 한시 바삐 없애 치워야 한다.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일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해서는 중공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

야 한다.

우리는 채취 공업의 발전을 선행시키면서 중공업의 골간에 계속 살을 붙이고 재가공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그것이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생산의 첫 공정인 채취 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 우리 나라의 무진장한 지하 자원을 적극 탐구 동원하여 그것이 인민 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계 제작 공업을 발전시킴이 없이는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

탄광, 광산 설비, 화학 공업 설비와 자동차,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의 생산을 확대하며 방직 기계들과 제지 설비, 일용품 생산을 위한 탁상 선반, 탁상 볼반, 탁상 후라이스를 비롯한 기계 설비들, 식료 가공 설비들을 대대적으로 생산 공급해야 한다.

그리하여 중공업의 골간에 계속 살을 붙이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함으로써 그것이 소비품 생산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인민 생활을 향상시킴에 있어서 화학 공업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 가지 화학 비료와 농약, 살초제를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촉진시키며 질 좋은 옷감을 더 많이 짜도록 비날론, 스프, 인견사 등 화학 섬유를 대대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특히 염화 비닐을 비롯한 합성 수지 원료의 생산을 증대시켜 일용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원만히 공급해야 한다.

생산이 확장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강재와 전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다.

금속 공장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규격 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며 발전소들에서는 현존 발전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우리 앞에는 실로 찬란한 화폭이 펼쳐져 있다.

당이 제기한 과업을 수행하면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일대 전변이 일어 날 것이며 우리 나라는 현대적 공업과 농업을 가진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전변될 것이다.

새 고조를 위하여 일떠 서자

우리는 지금 새로운 고조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천리마의 진군을 한 계단 더 높이 추켜 세우던 1958년을 감회 깊이 회고한다.

그 때 우리가 어떤 목표 밑에 무엇으로, 어떤 방도로 대고조를 한 계단 더 높이였으며 지금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하려고 하는가?

그 때 우리는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며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과업을 목표로 삼았다.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상 전래의 세기적 숙망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때 우리는 잠재하는 예비를 동원하여 지방 산업 공장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창설하는 것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켰고 그로 하여 5 개년 계획을 공업 총 생산액적으로 2 년 반 동안에 수행하였다.

지금 우리는 이미 튼튼히 축성된 중공업 기지와 경공업 기지에 의거하여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하려고 하며 이것으로 7 개년 계획을 기한 전에 초과 수행하려 한다.

그 때 우리는 손로동,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한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생산을 조직하여 경제를 앙양시켰다.

지금 우리는 자동화되고 기계화된 대규모적인 중앙 공업 공장들과 기계화된 지방 산업 공장들에서 현대적 기계 기술에 기초하여 생산을 진행하며 이것으로 경제를 장성시키려 한다.

그 때 우리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는 사상 동원 사업으로 아직 동원 리용되지 못 하고 사장되여 있는 예비를 동원하여 많은 것을 해결하였다.

지금 우리는 사상 동원 사업과 함께 일'군들의 조직 사업, 생산에 대한 지도에서 예비를 찾으며 전면적 기술 혁명, 전반적 기술 혁신에서 전진의 방도를 찾고 있다.

그 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계속 악전 고투하였으며 경제 깜빠니야를 련'이어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이미 넘어 섰으며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장기전을 위해 토대를 공고히 하면서 전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얼마나 큰 전변인가!

세월은 불과 5 년이 흘렀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에 얼마나 멀리 전진하였으며 조건인들 또한 얼마나 좋아졌는가!

우리는 이제 장만된 토대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고조를 이룩하려고 한다.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대인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비약은 오직 기술 혁신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

《모든 부문에서 손로동과 락후한 기술을 퇴치하며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어데서나 기계로 일하게 하여야 한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도처에서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며 혁신이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 기술 혁명 수행에서 전변을 가져 와야 한다.

당은 과학 기술 발전에서 주체를 세우며 전 당이 기술을 학습하며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누구나 다 자기 부문 일에 정통하여야 하며 맡은 일에 능수가 되여야 한다.

당은 가까운 기간에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2 배 이상으로 높일 것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설비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며 생산 면적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하며 예방 보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해야 한다.

《인민 경제 발전과 생산 장성의 중요

한 예비는 생산에 대한 지도와 조직 사업에 있다.》(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지도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항상 생산 현장에, 생산자 대중 속에 들어 가 군중과 함께 상론하며 걸린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혁명 과업 수행에서 지휘 성원들인 간부들의 사업 기풍은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논다.

지도 일'군들은 항상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밀고 나아가며 모든 분야에서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없는 것은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어떤 곤난에 부닥치더라도 자기의 힘으로 뚫고 나아가는 불굴의 혁명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언제나 국가적 견지에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가며 국가와 사회 재산을 극력 아끼고 절약하여 하나라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고 일체 낡은 사상 잔재와 생활 인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검박하게 생활하고 근면하게 일하는 혁명가적 기풍을 소유해야 한다.

전원 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각급 당 조직들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 조직들은 전원 회의 결정들과 편지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침투시키며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당 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업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강력히 전개하며 항상 간부들과의 사업에 1 차적 주목을 돌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 과업을 능숙하게 처리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

* *

당이 제시한 찬란한 설계도는 우리 나라 근로자들을 새로운 로력적 위훈에로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지금 전체 근로자들은 당이 보낸 편지를 심장으로 접수하고 당이 제기한 보람찬 과업을 빛나게 수행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

근로자들 속에서 바야흐로 일어 나기 시작한 환희와 격동의 파도는 곧 혁명적 대고조의 억센 물'결로 되여 전국을 휩쓸 것이며 이 땅 우에 그야말로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세상, 문'자 그대로의 지상 락원을 가져 올 것이다.

1964년 계획 수행을 위한 전투적 과업

림 계 철

최근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7 개년 계획의 첫 3 년간에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명년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명적 고조를 일으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1~2 년 내에 보다 부유하게 만들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킬데 대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1964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기본 과업은 이미 축성하여 놓은 자립적 경제 토대에 기초하여 중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킬 준비와 조건을 갖추며, 중공업을 더욱 보강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도록 하며,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인민 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하며 나라의 경제력을 일층 강화하는 데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전원 회의는 명년에 화력을 집중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심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로, 생활 필수품 생산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다종 다양한 생활 필수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생활 필수품 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며 생활 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장성하는 수요를 보다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로, 농촌 경리에서 논 면적의 대대적인 확장, 정당 수확고의 제고, 2 모작 체계의 광범한 도입, 간혼작의 대대적인 실시, 고산 지대에서의 알곡 증산에 력량을 집중하여 알곡 생산 특히 벼의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며 축산업과 과수업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한편 공예 작물 생산을 증대시켜 경공업의 원료를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

세째로, 중공업의 골간에 계속 살을 붙이며 그것을 더욱 정비 보강함으로써 경공업의 발전에 소요되는 각종 금속 및 화학 자재와 농업의 화학화에 필요한 각종 비료, 살초제, 살충제 등을 더 많이 생산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광업, 석탄, 림업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워 원료 및 연료 기지를 강화하여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네째로, 기계 제작 공업을 일층 강화하여 채취 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급속한 발전에 복무하도록 하며 기본 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다섯째로, 무역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며 외화 획득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전 당적, 전 군중적 운동으로 강력히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가 제시한 이러한 과업들은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전반적으로 고려를 돌리며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 문제를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당의 시종일관한 방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와 현실적 가능성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기초 우에서 오늘 나라의 장래 발전을 위하여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남만 못지 않게 부유하고 문명하게 만들기 위한 과업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것은 완전히 성숙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미 빛나는 성과들을 쟁취하였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적 자립의 토대로 되는 중공업의 발전에 커다란 힘을 집중함으로써 기계 제작 공업, 전력 공업, 석탄 공업,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 화학 공업 등 기간적 부문을 다 구비한 자체의 강력한 중공업 기지를 마련하여 놓았다.

특히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대형 공작 기계, 뜨락또르,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현대적인 기계 설비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기계 설비들에 대한 수요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의 연료, 동력, 자재 및 기계 설비들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 과업을 강력히 추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복무할 수 있는 중공업, 나라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중공업, 인민 생활을 보다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중공업을 축성하여 놓았다.

우리는 또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 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함으로써 경공업이라고는 거의 아무 것도 없던 북반부에 튼튼한 경공업 기지를 창설하여 놓았으며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조성하여 놓았다.

공업과 함께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현명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농촌은 발전된 사회주의적 농촌으로 급속히 전변되였다. 최근 년간 당이 농촌 경리 발전에 특히 커다란 력량을 집중한 결과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농촌 진지는 정치 경제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다.

이 모든 성과는 자력 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로선과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의 승리이며 우리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뚜렷한 시위로 된다.

당은 바로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명년도의 기본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며, 축적과 소비 간의 합리적 균형을 보장하는 우리 당의 방침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매 단계에서 해당 시기 당 앞에 제기된 정치 경제적 과업과 경제 발전의 제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항상 축적과 소비에 전면적 배려를 돌리며 그들 호상 관계를 정확히 해결하여 왔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찌기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재정 정책과 투자 방면에서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설정하며 유지해야 한다.

우리는 축적이 없이 그저 버는 대로 다 때려 먹고 소비해 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반드시 앞날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국가의 공업화를 위해서, 또한 사회주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해서 축적을 부단히 증가시켜야 한다. … 그렇다고 하여 축적에만 너무 치중하고 장래에만 너무 치중하여 목전의 인민 생활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그렇게 하여 왔지만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도록 하여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선집 제 5 권, 365~366 페지)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당의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근본적 문제들인 공업화와 인민 생활의 부단한 향상 문제가 밀접히 결부되여 해결되여 왔으며 중공업과 경공업 및 농업의 발전 속도와 그들 간의 균형이 정확히 보장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기본 로선이 성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였다.

이미 축성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에 의거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대대적으로 장성시킬 데 대한 금번 전원 회의의 방침은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 있어서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를 가장 훌륭히 보장하는 합리적인 대책으로 된다.

우리는 이 방침을 실현함으로써 이미 마련하여 놓은 물질적 토대에 의거하여 인민 생활을 활짝 꽃피우게 할 것이며 인민들의 로력적 열의를 더욱 고무하고 나라의 전반적 경제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 *

전원 회의는 명년도 계획의 기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들 앞에 나서는 중심 과업들을 명시하였다.

명년에 중공업 부문 앞에 나선 중심 과업은 채취 공업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면서 중공업의 골간에 계속 살을 붙이고 재가공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중공업으로 하여금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으로 되게 할 것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데 있다.

당은 명년에도 채취 공업에 계속 투

자를 집중하여 그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킬 데 대한 방침을 견지할 것이다.

채취 공업은 생산의 첫 공정이며 따라서 이 부문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원료, 연료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없으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명년에 채취 공업에서는 계속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특히 각종 유색 금속, 희유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며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여야 한다.

채취 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굴진을 선행시키는 문제이다. 굴진을 선행시킴이 없이는 생산의 정상화도 갱의 기술적 개건도 실현할 수 없으며 생산의 계통적인 증대도 보장할 수 없다. 굴진을 생산에 선행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력, 설비, 자재 및 자금 투자에서 굴진과 채굴 간의 비례를 5 대 5로 보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이리하여 광업에서는 1~2 년 내에 일대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준비와 조건을 갖출 것이며 석탄 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촉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는 오늘 중공업의 심장이며 기술 발전의 기초인 기계 제작 공업의 임무와 역할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명년도 계획 실행에서 기계 제작 공업은 다른 모든 과업을 해결하는 결정적 고리이다. 기계 제작 공업을 더욱 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일층 높이지 않고서는 채취 공업의 선행, 기본 건설,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발전, 제품의 질 제고 등 어느 것을 물론하고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기계 제작 공업의 중요 과업은 현존 기계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채취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필요한 기계 설비와 뜨락또르, 자동차, 관개용 양수 설비 등을 포함한 각종 선진 농기계들과 소형 선반을 비롯하여 생활 필수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계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생산 보장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대형 기계, 자동화 기구, 측정 기구 생산을 확대하며 다양하고 질 좋은 가정용 철제 일용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전력에 대한 수요를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다.

우선 기존 대규모 발전소들과 중소규모 발전소들을 더욱 정비하고 그 능력을 제고하여 전력 생산을 백방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강계 및 운봉 발전소와 평양 화력 발전소 등 대규모적인 발전소 건설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그 조업 개시 기일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 증산과 함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력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각종 규격 강재와 합금강, 철제 일용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박판 생산을 증대시키며 강관, 철선, 와이야 로프 등 재가공 제품의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켜야 한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화학 섬유 및 합성 수지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고 그 생산을 증대시켜 질 좋은 경공업 원료를 더 많이 공급하는 한편 각종 화학 비료와 살초제, 살충제를 비롯한 각종 농약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동시에 생활 필수품의 품종을 확대하며 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화학 자재와 화학 제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림업 부문 앞에 거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림업을 강화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목재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림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당이 일관하게 강조하고 있는 순환식 채벌 방법을 광범히 도입함으로써 림업 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다.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 생활이 제기하는 성숙된 요구이며 현 시기 우리 당이 결정적으로 해결하려는 중심 과업이다. 명년에 경공업 부문 앞에 나선 중심 과업은 3억 메터의 직물 고지를 점령하며 인민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금속 제품, 수지 제품, 화학 제품, 유리 제품 및 도자기 제품, 목재 가공 제품, 초물 제품 등 맵시 있고 아름다우며 더욱 질기고 쓸모 있는 다양한 일용품과 맛있는 식료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경공업 제품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며 인민 생활 향상에 보다 크게 기여하는 데 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 경공업과 지방 공업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한편 중공업을 비롯한 기타 모든 중앙 공업 부문 기업소들의 생활 필수품 직장을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하고 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그에 대한 령도 체계를 정확히 확립하여야 한다.

수산 부문에서는 대형 어업과 중소 어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적극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는 한편 저수지, 호수, 강하천 등 가능한 모든 곳에서 양식 양어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물 가공 사업을 개선 강화하여 인민들에게 맛 좋은 젓갈품을 비롯한 각종 수산물 가공품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한다.

명년에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며 특히 벼의 생산을 증대시켜 알곡의 질적 구성을 개선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 축산과 개인 부업 축산을 옳게 배합하여 소, 면양, 염소 등 초식 가축과 돼지, 토끼, 가금 등을 대대적으로 사육함으로써 축산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실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미 조성하여 놓은 과수원 관리 사업을 잘하고 계속 과수 면적을 확장하여야 한다.

기본 건설은 기계 제작 공업과 함께 명년도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명년에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채취 공업과 농촌 경리를 비롯한 생산적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고 생활 필수품 생산 부문에 보충적 투자를 앞세우면서 주택 및 공공 문화 후생 시설에 대한 건설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원 회의는 교통 운수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이 방대한 과업의 성과적 수행은 실로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

의를 가진다.

이것은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 데 대한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영예스러운 과업이다. 이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일대 전환이 일어 날 것이다.

또한 명년도에 이 과업들이 실현되면 중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온갖 준비와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이미 축성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는 가일층 공고화 될 것이다.

명년도는 7 개년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전진의 해로 될 것이다.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7 개년 계획 수행에서의 높은 고지를 넘어 서는 것으로 된다. 우리는 이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할 것이다. 이리하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며 우리의 혁명 진지는 가일층 공고화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것은 미제와 군사 파쑈 테로 통치를 반대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고무하여 줌으로써 조국 통일 위업을 촉진시킬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우리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지금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미제의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 자립을 요구하는 기세는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다시 한번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일으키는 것은 공화국 북반부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조국 통일에 대한 전망과 신심을 주며 그들의 투쟁을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인민 생활을 한 계단 더 높이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을 통하여 힘 있게 시위하는 것으로 된다.

이리하여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국제 국내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정세하에서 대중을 이끌어 천리마 운동의 발단을 열어 놓은 1956년 12월 전원 회의와 같이, 지방에 잠재하는 온갖 예비와 모든 가능성을 동원 리용하여 지방 공업의 대대적인 발전의 계기를 열어 놓음으로써 5 개년 계획의 수행에서 전환을 가져 온 1958년 6월 전원 회의와 같이 우리 당, 우리 혁명, 우리 조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 생활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될 것이다.

실로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과 제반 조치는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보다 큰 행복을 마련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중대한 대책으로 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와 우리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 *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들은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무한한 흥분과 격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그들을 새로운 로력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앙양되는 대중의 혁명적 열의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강구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전원 회의는 명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결정적 담보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계획 실행을 위한 사상 동원 사업과 조직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적 지혜를 계획 실행에로 한결 같이 조직 동원 하며 천리마 운동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키는 데 있다.》(전원 회의 결정서에서)

이것은 명년도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일'군들의 전투적 지침으로 된다.

명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그의 우월성이 확증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방법을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지도와 기업 관리 운영에서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경제 지도 사업에서 《행정 만능》, 《기술 만능》과 관료주의, 형식주의, 주관주의 등 낡은 사업 방법을 철저히 극복하고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이에 치밀한 조직 사업을 결합함으로써 제기된 혁명 과업을 당 조직과 군중을 조직 발동하여 보장하는 혁명적 사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의 성과는 결국 지휘 성원들의 능력과 활동 여하에 많이 달려 있다. 특히 지도 일'군들은 경제 사업에서나 기타 모든 투쟁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잡고 사업할 줄 알아야 한다. 주공 방향이 바로 잘 세워짐으로써만 투쟁에서 승리하며 중심 고리를 바로 쳐야만 다른 모든 고리들이 풀릴 수 있다.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고 그에 집중적으로 돌격하는 것이 바로 혁명적 사업 방법이며 혁명가의 사업 태도이다.

지도 일'군들은 자기 사업의 중심을 옳게 틀어 쥐고 명년도 계획 실현을 구체적으로 주도 세밀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에서 분산성을 극복하며 모든 것을 중심 과업의 해결을 위하여 집중시키며 중심에서 떨어짐이 없이 하나씩 돌파하여야 한다.

계획의 정확한 작성—이것은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다. 계획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계획 작성에서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중의 무궁 무진한 창발성이 계획에 남김 없이 반영되도록 하며 계획과 사업을 지도 일'군들이 직접 장악하고 조직 진행하는 것이다.

일단 작성되고 비준된 계획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무조건적으로 수행되여야 할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그러므로 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 규격별로 어김 없이 수행하는 엄격한 계획 규률을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확립하여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계획 실행에서 기관 본위주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자기에게 부과된 계획 과제를 책임적으로 리행함으로써 인민 경제 다른 부문, 다른 기업소의 계획 실행에 적극 기여하여야 한다.

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 조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재의 정확한 보장이다. 자재 보장과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자재를 우로부터 아래에 내려다 주는 공급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자재 상사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 혁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로동 행정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함으로써 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가까운 년간에 2 배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조직 전개하는 것은 명년도 계획 실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과업이다.

기술적 혁신을 일으켜 로동 생산 능률을 현저히 장성시키지 않고서는 명년도 계획에 예견된 방대한 생산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로력 문제는 오늘 우리 앞에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로력의 랑비가 적지 않으며 로력 절약과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예비가 얼마든지 있다. 전면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 이외에 로력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도는 없다.

기술 혁신을 적극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이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일층 강화함으로써 도처에서 기계화, 자동화가 실현되고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는 한편 로동 행정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로동 행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잘 실시하며 로동자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요한 정치이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원칙》(김 일성)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지도 일'군들은 로동 정량을 바로 정해 주고 로동에 대한 평가를 옳게 하는 등으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한 사업에 계속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로력 보충, 로력 후비 양성, 로동 규률의 강화, 로력 관리, 로동 안전 등에 대한 제반 대책을 잘 세움으로써 명년에 로동 행정 사업 전반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로동 행정 사업은 다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로동 행정 사업을 자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직맹, 민청 등 근로 단체들이 로동 행정 사업을 적극 방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존 생산 면적과 있는 설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은 당이 일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방침이다. 특히 예비 부속품 생산과 확보를 반드시 선행시키며 설비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 보수 체계를 정확히 확립하고 설비의 가동을 정상화하며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당의 이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추가적 투자 없이 생산의 장성을 가져 오며 모든 기업소들에서 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그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명년도 계획 수행에서 모든 지도 일'군들이 튼튼히 틀어 쥐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고리이다.

우리는 생활 필수품의 품종을 1~2 년 내에 3만 종 이상으로 확대하며 모든 제품의 질을 2~3 년 내에 선진적 수준에로 올리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한다.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고 품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을 지도하는 모든 지도 일'군들과 제품을 직접 만드는 근로자들이 낡은 사상을 철저히 청산하고 인민을 위하여 더 알뜰하고 쓸모 있는 제품을 더 많이 만들겠다는 공산주의적 사상 관점을 가지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정신이 높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다 알뜰하고 실속 있게 할 것이다. 결국은 사상 문제이다.》(선집 제 6 권, 256 페지)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근로자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는 그런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성심성의로 제품을 만들게 함으로써 하나의 저렬한 제품도 나오지 않게 하며 최단 기간 내에 모든 제품의 질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한다.

당은 명년도 계획 실행에서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절약 제도란 최소 한도의 지출로써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리 운영 방법이며 원칙이다.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가는 것은 명년 계획 수행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 토대를 일층 공고히 하며 나라의 축적을 증대시키고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중요 담보로 된다. 명년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절약 투쟁을 일상적인 사업으로, 전 군중적 투쟁으로 철저히 전환시켜야 하며 각종 랑비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당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대중이 우리 당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의 수행을 위하여 나설 때 우리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그 어떤 문제도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명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당 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 당원들과 대중 속에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 결정과 전원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기본 사상과 중심 내용을 깊이 해석 침투시킴으로써 대중이 당의 의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제기된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한결 같이 궐기하도록 사상 동원 사업을 철저히 보

장하여야 한다. 또한 각급 당 조직들은 경제 사업에 대한 키잡이 역할을 더욱 강화하며 당 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 특히 간부들과의 사업에 항상 제 1 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와 함께 당 조직들은 모든 부문에서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계속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당이 제시한 모든 과업들을 이악하게 달라 붙어 끝까지 관철하도록 교양하며 모든 일'군들이 관료주의,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당의 혁명적 군중 관점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당 조직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체 인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혁명적 대고조에로 불러 일으키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 조직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함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이 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심중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혁신과 진보는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며 진리이다. 당 조직들과 당원들은 우리의 전진 운동을 장애하는 보수주의, 소극성, 침체, 동요 등 현상과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을 보장하여야 한다.

매개 당 조직들과 국가 경제 기관 앞에 나선 당면한 과업은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 실행을 위한 최후 돌격전에서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금년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 및 초과 완수하며 명년도 계획 실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다.

특히 명년도 계획을 례년보다 훨씬 앞당겨 작성하게 된 것은 1964년 계획 실행을 위한 극히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다.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과업을 훨씬 앞당겨 제시한 당의 조치는 지도 일'군들로부터 모든 생산자들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토의 하에 새해의 구체적 투쟁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그 실현 방도를 옳게 세울 수 있게 하였으며, 설비 자재를 비롯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새해 첫날부터 자신만만하게 계획 수행에 착수할 수 있게 하였다.

모든 당 조직들은 당이 제시한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자》는 전투적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명년도 계획 실행을 위한 물질, 정신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게 함으로써 새로운 대고조에로 전체 인민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이리하여 1964년을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강령 실현에서 위대한 전환의 해, 결정적인 전진의 해로, 인민 생활에서 새로운 전변의 해로,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더욱 불패의 력량으로 강화하는 해로 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물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량 정 태

최근에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축산물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 것을 강조하면서 첫째로 《우리 나라의 자연 경제적 조건에 적응하게 소, 양, 토끼 등 초식 가축과 양돈업의 발전을 계속 견지하면서 닭을 비롯한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둘째로 《국영 축산업과 협동 농장 공동 축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개인 부업 축산을 배합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세째로 《지대적 조건과 사료 원천 및 수요를 옳게 타산하여 축산업을 가축별, 생산물 별로 전문화하며 집약화》(전원 회의 결정서에서)할 데 대한 금후 축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에서 제시된 축산업 발전의 이 방침은, 첫째로 축군 회전이 빠르며 적은 로력과 사료로써 고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가금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둘째로 국영 및 협동 농장들의 축산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개인 부업 축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협동 농장들에서 공동 사육과 개인 사육, 소집단 사육과 분산 사육을 배합 실시하며, 세째로 사료 조건, 기술 문제가 해결되는 데 따라 점차 축산업의 전문화, 집약화를 실시하고 가축 및 가금에 대한 속성 비육 방법을 도입할 것을 그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원 회의는, 이 방향에 기초하여 국영 및 협동 경리 공동 축산업과 개인 부업 축산에서 명년에 도합 13만 톤의 육류, 2만 3,700 톤의 젖, 2억 600만 개의 란류, 344 톤의 양모, 3,100 톤의 꿀을 생산할 것이며 그 중 협동 농장 매 작업반들에서는 1 톤의 육류, 개인 부업 축산에서는 호당 년 100~150 키로그람 이상의 육류를 생산할 전투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면 금번 진행된 전원 회의에서 축산업 발전의 방향이 왜 이렇게 설정되게 되였고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것이 현 계단에서 왜 특별히 강조되는가.

축산업을 빨리 추켜 세우고 축산물 생산을 급속히 증가시키는 것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 문제를 푸는 중요한 고리로 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축산업은 육류를 비롯한 축산물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가축, 털, 젖,

고기 등 경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며 농산업에 역축과 질 좋은 거름을 보장한다.

이와 같이 축산업의 발전은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또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당이 현 시기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축산업의 이러한 일반적인 중요성으로부터만 출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면한 문제를 풀자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였고 이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하는 것이 당면한 과업으로 되였다.

당은 가까운 년간에 모두가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 옷을 입고 더욱 유족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는 영예로운 과업을 제시하였다.

사람들의 주식물인 알곡을 비롯하여 직물, 주택들과 함께 먹는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축산물 생산을 더욱 발전시킴이 없이는 당이 제시한 이 보람찬 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현 시기 당이, 특히 금번 전원 회의가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킬 데 대하여 강조한 리유가 여기에 있다.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금번 전원 회의가 취한 조치는 축산 분야에 마련된 온갖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축산업 발전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왔고 매 시기 필요한 온갖 대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대규모 사회주의 축산업의 튼튼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지게 되였고 축산업의 생산 조직, 경영 활동 및 사육 방법에서 극히 귀중한 경험을 가지게 되였다.

또한 우리는 알곡 생산의 급속한 장성에 따라 그의 일정한 량을 가축 사료에 돌리게 되였고 축산업의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공업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였다.

또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된 결과에 축산업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였다.

이 모든 것은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를 실시하며 가축에 대한 속성 비육 방법을 광범히 도입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준다.

금번 전원 회의가 축산물 생산의 증가를 위하여 제시한 방침을 모든 단위, 모든 고리들에서 철저히 관철시킨다면 우리 나라 축산업 발전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축산 분야에 잠재해 있는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는 담보로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들이 당의 방침에 확고히 의거하여 축산업의 생산 조직과 사육 방법을 선진 과학 기술의 요구에 맞게 개선 발전시키는가 못 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 *

금번 전원 회의가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축산업의 물질 가술적 토대를 가일층 공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오직 높은 물질 기술적 토대에 기초해서만 축산 규모의 급격한 확대와 생산의 전문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종축의 개량은 그의 기본으로 된다. 종축을 개량하면 가축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료 단위의 소비를 낮출 수 있고 축산물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각급 농업 지도 기관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각 지방에 분포되여 있는 가축, 가금들의 품종들을 조사 장악하고 우량 품종과 개체들을 선발하여 그것을 체계적으로 개량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 지도 기관들은 가축별 종축 체계를 확립하고 우량 종축의 생산 및 공급 사업이 정연한 체계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고한 사료 기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사료 문제의 해결은 축산업의 전문화, 집약화의 급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더욱 더 중요한 문제로 되였다.

사료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 부문 자체가 백방으로 노력하여 사료 기지를 더욱더 튼튼히 조성하는 한편 유관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각종 가축 사료들을 책임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산이 많고 경지 면적이 제한되여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2 모작으로 사료를 재배하며 자연 사료 기지를 적극 조성 리용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선 농업 부문 지도 일'군들은 2 모작 사료 재배가 가지는 의의와 유리성을 옳게 인식하고 논 및 공예 작물 전작으로 호밀, 보리, 채소, 사탕무우 등을 광범히 재배하여 가축의 다즙 사료와 농후 사료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명년에 협동 농장 매 작업반에서 1 정보의 알곡, 2 정보의 사료 작물, 500~1,000 평 이상의 채소를 논밭 전작으로 재배하여 그것을 작업반 자체 사료로 리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부터 예견성 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또한 야산과 하천 류역을 비롯한 일체 공한지들과 저수지들에 갈, 호박, 수초 등의 가축 사료를 광범히 재배하고 칡, 아까시아 등의 자연 사료 기지를 조성리용하며 일체 농업 부산물들을 가축 사료로 잘 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차 그의 공급량이 증대되는 농후 사료에 대한 효과적인 리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축산 부문과 련관된 인민 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도 사료 문제 해결에 보다 큰 주의를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금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동물질 사료와 광물질 사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된다. 그러므로 수산 부문에서는 어분과 골분을, 경공업 부문에서는 번데기박과 소금을 시기별, 종류별로 정확히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매 량정 부문에서는 미강박, 밀'기울, 옥수수 배아박 등 량곡

가공 부산물을,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효모 사료, 합성 뇨소 등 화학 사료를 계획에 의하여 제때에 생산 공급해 주어야 한다.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축 두수의 장성에 따라 축사 시설들을 완비하며 축산 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시키는 것이다.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는 축산업의 전문화와 속성 비육 방법의 도입에 적합하게 현존 축사들을 개축 완비하고 현존 축사 시설의 리용률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며 부족되는 축사 시설에 대해서는 지대별, 가축별 표준 설계에 의하여 전망성 있게 건설해야 한다.

한편 각종 동력 원천에 의거하여 사료 분쇄 작업을 비롯한 사료 조리, 운반, 급수, 전모, 착유 등 모든 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여 1 인당 가축 관리 두수와 생산액을 결정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현존 축산 기계 설비들에 대한 일체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전반적인 보수 정비 대책을 수립할 것이며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농촌 지원 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축산 작업의 기계화를 백방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

축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에서 수의 방역 사업의 강화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농업 지도 기관들과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는 수의 방역 사업과 예방 치료 대책을 강화하여 가축들의 질병과 폐사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을 관철하고 축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가축에 대한 사양 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아무리 종축이 좋고 사료가 풍부하며 또 축사 설비와 기계가 완비되고 수의 방역 사업이 째였다 할지라도 사양 관리 사업이 잘 조직되여 있지 않으면 축산업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현 시기 가축 사양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축산의 생산 조직과 함께 경영 활동을 현실적 요구에 적응하게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하는 것이다.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는 가축별로 전문 작업반을 조직하고 축산물을 년중 생산하는 원칙에서 축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며 축군별에 따르는 과학적인 관리 방법과 선진 경험을 적극 도입 일반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기업적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경영 활동에 대한 타산을 강화하여 1인당 가축 관리 두수를 증가시키며 축산물 단위당 사료 지출과 가축의 폐사률을 낮춤으로써 가축의 생산성과 축산업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속성 비육 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사양 관리에서 기술적 지도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는 우량 가축의 선정, 배합 사료의 리용 및 강제 비육의 실시 등등 가축에 대한 기술 관리를 개선하며 가축별 도살 월령을 정확히 설정하고 제때에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

축산물 생산의 급속한 증가를 위하여 이 부문 과학 기술 일'군들에게는 중대한 임무가 부과되여 있다.

대규모 사회주의 축산업의 건설과 축산물 생산의 전문화, 집약화에로의 이행은 허다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축산 부문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각이한 지대적 특성에 적합한 사료용 식물들의 재배, 그의 성장 및 가공, 생산성이 높고 생활력이 강한 신품종의 육성, 과학적인 사양 관리 체계의 확립, 각종 질병의 발생 및 오염 경로의 해명, 그에 대한 대책의 수립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긴절한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하여 수의 축산 기술자 양성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축산 부문 대학들과 통신 교육망을 확장하여 수년 내에 협동 농장당 1 명의 축산 기사와 작업반당 1 명의 축산 기수가 차례지도록 양성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축산물 생산을 가일층 증가시키기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면서 또한 우리들은 축산물 수매 사업의 조직과 주민들에 대한 이 상품들의 공급 사업을 개선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 하면 축산물의 수매 및 공급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은 축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으로 되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물 생산의 전문화, 집약화가 강화되며 그의 상품 생산량이 급격히 증대되는 만큼 축산물의 수매 사업을 생산자들의 리익과 편의를 존중히 하는 원칙에서 개편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로 된다.

지방 정권 기관들, 상업 류통 부문 일'군들은 생산된 축산물을 현지에서 제때에 수매하며 농민들이 부업으로 기른 가축, 가금들을 그들의 의사에 따라 국가에 수매시키거나 농민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도시 및 로동자구를 비롯하여 주민이 많이 사는 지대들에 육고망과 국영 및 협동 농장 직매점을 설치하며 농민 시장을 활발히 운영케 함으로써 각종 축산물과 생가축에 대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수요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

축산 부문 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게 제기된다.

축산이란, 생명을 가진 동물을 다루는 일이며 년간을 통하여 하루도 빠짐 없이 시중해야 하고 영양가가 높은 먹이를 정도에 맞게 골고루 때를 맞추어 주어야 되는 세밀하고도 복잡한 일이다.

축산의 이러한 특성은 생산의 전문화, 집약화가 강화됨에 따라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축산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옳게 인식하고 그에 적응하게 당적 지도와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각급 당 조직들과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들은 축산에 대한 지도에서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축산업이 전문화, 집약화의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게 되며 협동 농장들의 공동 축산업이 작업반 단위로 확대 발전되기 때문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일부 일'군들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지도 작풍을 철저히 극복케 하고 지도 일'군 자신들이 직접 생산 단위에 내려 가서 종축의 개량, 사료 기지의 조성, 축산 작업의 기계화 등 축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급 당 조직들은 계획화 사업에서 군중 로선을 관철하여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축산 계획을 작성케 하고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부과된 계획 과제를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 없이 완수 및 초과 완수하도록 해야 한다.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축산업에서 생산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제고하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 가축 사양에 대한 생산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을 높이게 하며 생산을 많이 내고 일을 잘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수가 차례지도록 해야 한다.

축산업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축산 부문 일'군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과 공훈 사양공 대렬을 확대하기 위한 운동을 강화하여 가축 사양에서의 일'군들의 책임성과 사업에 대한 그들의 긍지를 일층 높이는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과 축산 부문 지도 일'군들은 국영 및 협동 농장들에서 축산 부문 앞에 제기된 당면한 과업들인 종축 확보, 건초를 비롯한 사료 생산, 가을철 수의 방역, 과동 준비 등을 성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도를 일층 강화해야 된다.

모두다 금번 전원 회의가 제시한 력사적 과업 실현에 한결 같이 동원됨으로써 축산물 생산에서도 새로운 전환과 고조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추켜 세운 1958년 9월 전원 회의

리 혁 수

력사적인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9월 전원 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갔다.

9월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앙양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고리인 철과 판개 문제를 옳게 포착하고 그의 해결에로 대중을 힘차게 불러 일으킴으로써 천리마의 대고조를 더욱 추켜 세운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전원 회의 이후 지난 5년간은 우리 나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변혁들로 가득찬 시기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실로 세인을 놀래우는 비약적 전진을 이룩한 시기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전원 회의가 제시한 전투적 과업 실행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앙양을 위하여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불사르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붉은 편지 관철을 위한 긴장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져 놓았다.

이 기간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9월 전원 회의의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 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할 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 력사적인 1958년 9월 전원 회의의 경험과 교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9월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이 일대 고조기에 들어 선 력사적 환경 속에서 소집되였다.

당 앞에는 전후 시기 실현된 사회 경제적 변혁들과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에서 축적한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켜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미 완성되였고 승리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력 발전을 더욱 강력히 추동하고 있었다.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 천리마 운동은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날을 따라 더욱 고조되여 가고 있었으며 당 주위에 굳게 결속된 대중의 창조적 열의는 비상히 앙양되고 있었다.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제 1 차 5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첫 두 해 과업을 성과 있게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자립적 민족 경제 토대는 가일층 강화되였고 중공업 및 경공업 기지들이 튼튼히

축성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 발전의 제반 조건들도 마련되였었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추켜 세울 수 있는 제반 조건들은 이미 충분히 성숙되게 되였다.

당 앞에는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며 농촌 경리를 포함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명을 급속히 수행하여야 할 긴박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성숙된 객관적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고 공화국 창건 10 주년 기념 경축 대회에서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 경제 전반에서 결정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광활한 전망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강령적 과업을 성과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중공업의 가장 중요한 기간적 부문인 금속 공업을 앞세워야 하였으며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여야 했다.

철과 기계,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의 인민 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만 우리는 나라의 공업화를 촉진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전원 회의는 금속 공업 발전을 촉진시키며 발 관개 및 논 관개 면적을 더 확장할 데 대한 문제를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 고리로 인정하고 그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토의 강구하였으며 사회주의 대고조를 더욱 추켜 세울 것을 호소하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를 채택하였다.

철과 기계, 이 문제의 해결은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업화와 전면적 기술 혁신의 기본 고리였다.

당시 인민 경제의 그 어느 부문을 막론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철재였다.

수 많은 공장 건설, 농촌의 대자연 개조 사업, 철도 및 항만의 복구 확장, 주택 및 문화 시설들의 건설 등 이 모든 것이 다 철에 걸려 있었다.

철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는 것도 못 하였고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못 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철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우리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흑색 금속 공업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거대하다. 흑색 금속 공업은 중공업 중에서도 기간적인 부문이다. 흑색 금속 공업이 발전하지 않고는 기계 제작 공업과 기본 건설의 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김 일성 선집 제 5 권, 464 폐지)

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선 나라의 공업화와 인민 경제의 전면적 기술 개건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기계 제작 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기계 제작 공업은 중공업의 핵심이며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위한 기초이다. 이것이 없이는 중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를 실시할 수 없으며 인민 경제의 전면적 앙양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회의에서는 《철과 기계는 공업의 왕이다》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그의 관철에로 전 당을 불러 일으켰다.

당은 철 생산의 확대를 위하여 우선 모든 야금 공장들과 광산들에서 부단한 기술적 개조를 진행하며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고 현존 기본 건설을 앞당겨 금속 제품의 생산을 증대시키는 한편 철재 절약과 고자재 회수 및 지질 탐사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당은 또한 근로자들 속에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운동》을 광범한 창의 고안 운동과 밀접히 결합시키며, 로동자와 기술자와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최대의 주의를 돌림으로써 금속 공업과 기계 제작 공업 분야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선철과 립철 생산은 1962년에 1956년에 비하여 525%, 기계 제작 공업은 같은 기간에 681%의 비약적인 장성을 보이였다.

금속 공업의 장성은 선철 생산에만 치중되였던 일면성을 퇴치하고 각종 규격 강재들, 형강, 환강, 강판, 특수 강재 등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였으며 철재와 강재에 대한 기본 건설과 기계 제작 공업의 장성하는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기존 공장들을 확장하며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 건설이 활발히 진척되게 되였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장성은 우리 나라에서 소요되는 중소형 기계 설비들은 물론 야금 설비, 발전 설비, 자동차, 뜨락또르, 엑쓰까와또르 등 대형 기계 설비까지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주의적 공업화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술 혁명을 전면적으로 촉진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비날론 공장과 같은 대규모적인 현대적인 공장도 능히 자체로 건설할 수 있는 일체 설비들을 만들 수 있게 되였으며 지금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게 되면 만들 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 공업화와 기술 혁명의 급속한 발전은 공업 생산에서 높은 장성 속도를 보이게 되였는바 우리는 그간 매년 30~40% 또는 그 이상 빠른 속도로 뛰으로써 세인을 경탄케 하였다.

전원 회의는 금속 공업과 함께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였다.

뒤떨어진 농업을 공업에 따라 세움이 없이, 특히 식량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이 없이는 사회주의를 더 빨리, 더 잘 건설할 수 없었다.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고리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 우선 그의 기본으로 되는 수리화를 급속히 완성시키는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회의는 발 관개 및 논 관개 면적을 계속 확장할 데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다.

당은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급속히 완성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공업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관개 공사는 국가에서, 중소 관개 공사는 협동 농장들이 담당 수행하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전 군중적 운동을 조직 전개하였다.

결과 전원 회의 이후 불과 반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37만 여 정보에 물을 댈 수 있는 대관개 공사를 완공하여 농촌 수리화의 과업을 기본적으로 완수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조밀한 관개망으로 뒤덮이게 되였고 억만년 흉풍을 모르는 오곡 백과 주렁진 땅으로 전변됨으로써 수천년을 두고 한재와 수재에 시달리던 우리 농민들의 세기적인 숙망이 실현되였다.

농촌 수리화의 과업이 실현됨에 따라 전기화의 과업도 또한 기본적으로 해결되게 되였고 농촌 기계화를 급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농촌에서는 기경과 파종, 운반 등 기본적인 영농 작업들이 기계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농업 생산은 년년이 증대되게 되였는바 알곡 생산은 1962년에는 1957년의 320만 톤에 비하여 약 1.6 배나 되는 500만 톤 수준에 오르게 되여 우리 나라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실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두 개의 중심 고리인 금속 공업과 농촌 수리화를 튼튼히 틀어 쥐고 그의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능숙히 조직 동원함으로써 제 1 차 5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1 년 반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약진을 이룩하였다.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력사적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천리마의 대고조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불사르며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가적 기풍으로,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대중을 무장시켰다.

천리마 운동의 위대한 힘은 《…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고도로 앙양시킨 대중적 운동이라는 데》(《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48 페지) 있다.

그러므로 당은 사회주의 고조의 가일층의 앙양을 위하여 사회 경제적 및 물질적 제 조건을 조성하면서 이에 대중의 창조적 열의를 억누르는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는 사상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켰다.

온갖 대중적 혁신 운동이 그러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대고조, 천리마 운동은 낡은 것과의 투쟁을 통하여 발생 발전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신이 일어 날 때에는…락후한 것과의 투쟁을 동반하는 것이다. 보수주의적인 것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혁신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생활의 법칙이다.》(김 일성 선집 제 6 권, 109 페지)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이후 우리 당은 보수주의와 소극성과의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며 대중을 계속 혁신, 계속 전진에로 불러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대고조, 천리마 운동은 제 1 차 5 개년 계획이 성과있게 진척되고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이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되여 전면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더욱더 고조되였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과 소극 분자들은 발전하는 현실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대중의 장엄한 천리마 진군에 겁을 먹고 뒤'걸음치며 그의 전진을 저애하였다.

그들은 《기술 신비주의》를 운운하며 낡은 공칭 능력과 기술 기준을 가지고 대중의 창발성을 억눌렀다.

보수주의자들과 소극 분자들은 스스로 난관을 돌파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할 대신에 자기의 힘—조선 사람의 힘을 믿지 않고 남의 것만 숭상하고 쳐다 보며 그것을 기계적으로 옮기기에만 몰두하면서 적극성과 창발성을 내지 않고 있었다.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극복함이 없이는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높이 추켜 세울 수도, 천리마 운동을 발전시킬 수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회의는 전진 운동을 저애하는 보수주의와 소극성,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불사르고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함으로써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것을 전 당에 호소하였다.

당시 우리의 앞에는 나라의 공업화를 위하여 새로운 공업 부문을 창설하며 필요한 대형 기계 설비까지도 자체로 만들며 원료와 자재도 그 모든 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선렬들, 항일 빨찌산들의 불요 불굴의 투지와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이 요구되였으며 주체적 립장에서 나라의 살림을 꾸려야 할 것이 요구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극복하는 사상 투쟁을 대중 속에서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시켰다.

당 중앙 위원회는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 그러면 모든 〈신비성〉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무엇 때문에 우리는 남의 기준량의 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며 남의 뒤만 따라 가야 한단 말인가.

다른 나라에서 4~5 년 걸려서 하는 일을 우리가 2~3 년에 하여 놓는다면 무엇이 나쁘겠는가.

우리는… 어떤 난관이든지 대중을 동원하여 헤쳐 나갈 줄 알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조직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창조》하여야 한다.

당은 광범한 대중 속에 전원 회의 결정과 붉은 편지 정신을 해석 침투시키며 그의 실행에로 적극 추동하는 한편 간부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반대하는 강력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면서 대중의 창발적 발기들을 적극 지지하며 그를 실지 생산에 구현하도록 꾸준히 지도 방조하였다. 이와 함께 당은 대중을 주체의 사상으로,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부단한 교양 사업을 조직 진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은 간부들과 근로자들 속에 남아 있는 보수주의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적 지혜를 사회주의 건설에로 남김 없이 동원하며 대중을 계속 혁신, 계속 전진에로 불러 일으켰다. 이리하여 세인을 경탄케 하는 거대한 기적과 혁신을 낳게 하였다.

기계 공장도 아닌 주을 아마 공장에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이 일어 났고 농기계 공장과 뜨락또르 수리 공장에서 뜨락또르와 자동차가 생산되고 과거에

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8 메터 타닝반, 3,000 톤 프레스를 비롯한 각종 대형 기계들이 생산되였다.

이것은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극복할 때,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자》는 당의 구호를 대중이 접수하고 일떠설 때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낳는가를 보여 준다.

경험은 우리의 전진 운동이 사상 해방 사업과 밀접히 결합될 때 인민 대중의 로력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 정책의 진수를 대중 속에 철저히 파악시키며 낡은 사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강화하며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밀접히 결합시켜 대중의 정치 사상 의식을 부단히 높일 때 사회주의 건설에서는 거대한 앙양이 일어 난다.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 운동은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이 강화되고 청산리 방법이 철저히 관철되여 당 사업이 사람과의 산 창조적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의 높은 단계를 이루는, 생산 혁신 운동과 인간 개조 운동이 밀접히 결합된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심화 발전되였다.

오늘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인민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추동력으로, 대중적 경제 관리 운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는 대중 교양의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전진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대한 힘으로 되였다.

❊　　　❊

9월 전원 회의가 우리에게 준 력사적 교훈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 고리를 틀어 쥐고 대중을 줄기차게 동원하며, 전진을 가로막는 낡은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하고 주체적 립장에 서서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할 때 그 어떠한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천리마의 대고조를 더 한층 높이 추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9월 전원 회의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룩한 모든 물질적 및 정신적 성과는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높이 될 수 있는 토대로 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는 중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전당이 인민 소비품 생산에 화력을 집중하여 1~2 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빛나게 완수할 데 대한 력사적인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킬 것을 전 당에 호소하였다.

우리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세련된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그 주위에 굳게 단결된 인민 대중이 있음으로 하여 어떠한 어려운 난관과 시련도 능히 이겨 낼 수 있었다. 우리는 과거 그러하였던 것처럼 금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가 제시한 과업도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충만되여 있다.

《전 세계사》(쏘련 과학원 편) 조선 관계 서술의 엄중한 착오들에 대하여

력사학 박사 교수　김 석형, 김 희일, 손 영종

쏘련 과학원에서는 1955년 이래 10 책으로 되는 《전 세계사》를 편찬하여 간행하고 있다. 멀지 않아 그 마지막 권이 세상에 나올 예정이다.

우리 맑스주의 사학가들이 지구 상 모든 나라 인민들의 력사를 맑스-레닌주의 방법론으로 개괄하여 세계사를 서술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인민의 력사에서 과거나 현재의 식민주의 학자들, 부르죠아 반동 사가들이 가해 놓은 온갖 외곡들을 극복하며 모든 력사적 사실들을 전면적으로 바로잡아 놓을 수 있다. 과거 부르죠아 사가들에 의하여 시도된 전 세계사들은 어느 것이나 모든 나라들의 력사가 아니라 몇몇 《선발》된 나라들의 력사로 구성되였으며 인민의 력사가 아니라 침략자와 착취자의 력사로 엮어졌다. 또한 그것들은 어느 것이나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부인하면서 사회 발전이 해당 사회의 외부로부터 오는 이러저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곡하여 왔다.

세계사를 서술하는 맑스-레닌주의 사학가들의 임무는 응당 이와 같은 온갖 부르죠아적 외곡과 허위 날조를 폭로 분쇄하면서 력사를 인민의 력사로 서술하여야 하며 사회 발전을 그 내부적 요인들의 작용에 의한 합법칙적 과정으로서 체계화하여야 하며 자기 나라의 력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인민의 력사에 대해서 공정한 립장을 취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 부르죠아 반동 사가들에 의하여 허위 날조가 혹심하게 가해진 동방 여러 나라 인민들의 과거에 대하여 현 시기 맑스-레닌주의 사학가들은 가장 공정하고도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련 과학원 편 《전 세계사》 조선 관계 서술에서는 맑스-레닌주의 력사학의 이상과 같은 기본 요구와는 배치되는 엄중한 착오들이 있으며 조선사에 대한 저자들의 편견과 무식으로 인하여 수다한 외곡들과 허위 날조들이 있다. 우리는 조선 력사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또 이 책에서 처음으로 조선 력사를 아주 국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일부 알게 될 독자들을 위하여 그 조선 관계 서술에서 범하고 있는 오유들과 외곡들을 지적하여 독자들의 리해를 바로 잡아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그 몇 가지를 지적하려고 한다.

1

《전 세계사》 조선 관계 저자들이 범한 엄중한 착오들 중에서 우선 지적하여야 할 것은 그들이 우리 고대사를 무시해 버린 점이다. 기원 전 시기에 적어도 4~5백 년간이나 존재했던 우리 고대 국가들은 그들에 의하여 제멋대로 삭제되고 말았다. 어떻게 이렇게 력사를 조폭하고 무지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우리 고대사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미 기원 전 5~4 세기에 고조선 국가가 존재하였으며 기원 전 3 세기에는 부여, 진국 등 나라들이 있었다.

우리 력사에서 첫 고대 국가인 고조선은

로하 류역으로부터 조선 반도의 서북부에 이르는 광대한 령토를 가진 강력한 국가였다.

기원 전 4~3 세기 이전에 편찬된 중국의 《관자(管子)》라는 책에는 기원 전 7 세기에 《조선》이 중국 제(齊) 나라와 무역한 사실이 기록되여 있다. 중국 사서 《사기(史記)》와 《위략(魏略)》에 의하더라도 고조선은 늦어도 기원 전 5~4 세기에는 국가로서의 확고한 징표들을 가진 나라였다. 즉 거기에는 기원 전 3 세기 말 2 세기 초에 우리 나라에서 왕조의 교체가 일어 났으며 전(前) 왕조에는 부(否), 준(準), 후(後) 왕조에는 만(滿), 우거(右渠) 등의 왕들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되여 있다. 또 《한서(漢書)》에 의하면 이 나라에는 오랜 기원을 가진 성문법 8 개조가 있었는바 이 법률 조항들에서는 이 나라를 노예 소유자 국가로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가혹한 형벌 제도와 노예 제도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에 의하면 남의 재산에 대한 사소한 절도 행위에 대해서도 그 《범인》을 노예로 삼을 것과 일단 노예로 된 자는 막대한 돈을 물어야만 평민으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이 서술되여 있다. 뿐만 아니라 가혹한 노예 제도는 다시 평민으로 속량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를 보통 평민들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8 개조 성문법은 노예 소유자 계급의 리익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가혹한 사회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고조선의 노예 소유자—귀족들은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된 국가 기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상(相), 대부(大夫), 박사(博士), 장군(將軍) 등의 관직은 왕의 전제 권력을 보강하는 중요한 직분을 수행하였으며 관직을 맡은 귀족들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토지와 인민을 령유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이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니 기원 전 3 세기 초에 중국 연 나라와 대전쟁을 진행하였으며 그보다 오랜 기원 전 4 세기에는 연 나라의 침략에 대처하여 그에 대한 대공격을 준비하다가 《대부》인 례(禮)의 반대로 이를 중지하였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

중국 사서(史書)를 읽을 수 있다면 기원 전 2 세기 말 고조선이 적어도 수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조선이 원시 사회 내부에서의 생산력 발전에 기초하여 발생한 계급 사회였다는 것은 오늘 조선 반도 서북부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출토품들로써도 방증할 수 있다. 기원 전 2,000 년 기 말부터 시작되는 우리 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비파(琵琶)형 단검(종전에 만주식 단검이라고 하던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 문화의 계승자들은 기원 전 6~5 세기에 철기 사용으로 넘어 갔다. 그들에 의하여 창조된 고조선 문화는 기원 전 수세기부터 계급 사회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고도의 련철 기술과 공예품의 발달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모든 문헌 자료들과 고고학적 출토품들은 고조선이 독자적으로 기원 전 5~4 세기 경에는 고대 국가로 형성되여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조선 이외의 우리 고대 국가들 중에서 부여는 기원 전 3 세기에는 고대 국가로 형성되여 있었다. 특히 기원 3 세기 후반기에 편찬된 중국 사서인 《삼국지(三國志)》가 전하는 부여의 력사를 보면 《호민(豪民)》과 《하호(下戶)》가 있었고 군왕(君王) 아래에 정연한 중앙, 지방의 통치 기구가 있었으며 귀족들이 죽으면 100 여 명의 노예를 순장하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이 나라 귀족의 호화로운 생활과 엄격한 남녀 차별과 가혹한 형벌 제도, 노예 제도에 관한 기록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중국 동북 지방 송화강 류역의 이 나라는 조선, 중국 사서들에서 고구려에 선행한 국가로 서술되여 있으며 부여 왕실의 계보와 왕명들이 기록되고 있다.

이 밖에도 조선 반도의 중남부에 자리 잡았던 진국(辰國—마한)을 비롯하여 그 국명과 국가 기구를 엿볼 수 있는 나라들을 조선과 중국의 사서들은 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 력사가들은 우리 고대사 연구에서 이미 많은 사실들을 천명하였으나 앞으로 더욱 많은 것을 해명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사》는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의 고대사를 부정해 치우면서 다만 중국 《연 나라 왕의 한 사람》인 《위만》이 조선으로 와서 《기원 전 2 세기 초에 조선 왕국에서 정권을 장악》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것은 원 사료를 읽어 보지도 않고 내린 망단이다. 만에 대하여 말할진대 《사기》 조선 렬전 이하 그 어떤 사서들에도 만을 연 나라의 왕이라고 한 것은 없다. 그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사료인 《사기》 조선 렬전을 다른 부분의 서술들과 대비하면서 세심하게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행한 왕조에 대체한 그의 왕조가 조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아 낼 수 있는 것이다. 만자신도 조선 사람이였다고 론증한 학자는 종전부터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전 세계사》는 고조선과 그 밖의 우리 고대 국가들의 력사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 그러나 4~5백 년간에 걸쳐 존재한 이 고대 국가들이 어떤 무식한 외국 필자들의 주관에 의하여 우리 력사에서 삭제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력사가 사람들의 주관에 의하여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세계사》가 우리 고대사 서술에서 범한 이와 같은 엄중한 착오는 우선 주어진 자료들에 대한 료해도 없이 이를 되는 대로 처리한 데 기인한다.

고대사 서술에서 《전 세계사》가 범한 엄중한 착오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세계사》는 《종족 동맹들과 첫 국가들의 성립》이라는 제목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전기한 정체 모를 왕국의 서술에 앞서 우리의 《첫 종족 련합》은 기원 전 2천 년기 말에 중국 은 나라의 망명 귀족인 기자(箕子)와 그와 함께 망명해 온 중국 사람들에 의하여 수립되였다고 론단하였다. 이 허황하기 짝이 없는 《기자 동래설》을 《전 세계사》가 인용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우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기자 (箕子)라는 인물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은 나라 말년 즉 기원 전 12 세기에 은왕 주 (紂)의 숙부로서 포악한 주왕에 의하여 갇힌 몸이 되였다가 은 나라가 주 (周) 나라 무 (武)왕에 의하여 멸망하자 석방되였고 석방된 후에는 기(箕)국의 령주 (제 4 급의 령주인 자 《子》)로 되였다고 전한다. 기자는 그의 본 이름이 아니라 《기국의 령주》라는 뜻이다. 오늘날 그의 이름이라고 전하는 서여 (胥餘)는 기원 후 시기에 이르러 조작된 것이였다. 그 이름도 명확하지 않은 이 인물의 전기에는 전설적인 요소가 아주 많다. 그러한 전설적인 기록에 의하더라도 기자는 중국 본토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 즉 기자는 주 나라 무왕을 위하여 유교 정치의 기본 원칙들인 《홍범 (洪範)》 9 개조 (九疇)를 진술하였고 그후 자기 나라에 있다가 주 나라의 서울을 방문하였고 그 길에서 은 나라 고도를 지나다가 폐허로 된 그 곳에 보리가 무성한 것을 보고 맥수(麥秀)가를 불렀다고 한다. 중국 고문헌들인 《상서(尙書)》와 《시경 (詩經)》에 이 홍범과 맥수가가 실려 있다. 3 세기 중국 진 (晉) 나라의 주석가인 두여 (杜預)는 기자가 《기》국 땅인 오늘의 중국 하남성 몽현(蒙縣)에서 살다가 죽었고 거기에는 그의 무덤이 있다고 하였다. 기자가 실재한 인물이였고 그의 전기가 진실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는 이 곳에서 은, 주의 서울로 래왕하였다고 볼 수 있다. 기자가 조선에는 올 수도 없었으며 올 리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후세에 와서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동래설이 중국의 봉건 사가들과 조선의 사대주의 봉건 사가들에 의하여 조작되였다. 전자는 타국에 대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후자는 그 국내 봉건 통치 질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기자 전기 중에서 전설적 요소들을 제멋대로 리용하여 사실들을 위조하였다. 즉 중국에서는 기원 전 3~1 세기

의 저작들인 《상서대전 (尙書大傳)》과 《사기(史記)》의 《송 미자 세가(宋微子世家)》가 그 첫 조작자들이다. 이 사서들에 의하면 주 나라 무왕은 기자를 자기 신하로 삼기가 곤난해서 《조선》의 주권자로 책봉하였다고 꾸며 놓았다. 그리고 보면 기원 전 12 세기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된다. 그 허황성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 전 3 세기 이전의 중국 고문헌들에서는 기자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나 조선과는 아무 관련도 없이 서술되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원 전 1 세기의 《사기》도 정작 조선의 력사를 서술하고 있는 《조선 렬전》에서는 기자에 관하여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 사서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면 누구에게나 기자가 조선으로 왔다는 소위 동래설이 대체로 기원 전 3~1 세기 경부터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조작되기 시작하여 그 후 점차 내용이 첨가되였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과연 기원 전 3~1 세기부터 중국 사람들은 조선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였고 그 봉건 통치배들은 이 곳을 침략하고 있었다. 나라의 문화 수준이 높으며 인민들의 례의범절이 훌륭한 그러한 조선을 중국의 봉건 사가들은 자기 나라의 《성인(聖人)》들 특히 그중에서도 전설적 요소가 적지 않은 기자의 《교화》에 결부시킴으로써 그 침략 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전기한 두 여가 오늘의 중국 하남성에 기자묘가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사기》와 그 밖의 중국 사서들의 《기자 동래설》을 반대하여 쓴 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사》는 《…남만주 및 그 곳과 린접한 반도의 북부 지방에서 출현한 조선에서의 첫 종족 련합은 기원 전 2천 년기 말에 중국 이주민들이 형성하였다.

… 자기의 종족 그루빠와 함께 조선에 이주해 온 은 나라의 종족 귀족의 한 사람인 기자가 이 련합의 수장으로 되였다.》(2 권, 577 페지)라고 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사》는 원주민이 중국 이주자들로부터 양잠업과 수공업을 배웠고 《검정콩》, 《수수》, 《메밀》과 청동 제품, 철 제품도 중국에서 받아 들이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기자의 《업적》을 더 날조, 첨가해 넣은 15 세기 중국의 잡서 (雜書)들에서 전하는 말들을 그것도 되는 대로 옮겨 놓은 것이며 《검정콩》 등의 전달 운운은 그러한 황당한 기록들에서도 볼 수 없는 《전 세계사》 저자들의 《신 발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사》의 저자들이 이왕 전설이나 신화를 가지고 조선 력사의 첫 머리를 서술할 바에는 왜 《단군 신화》를 무시하였는지 모르겠다.

조선 사서 《삼국 유사》에 의하면 기자보다도 천 년이나 이전에 《조선》의 임금으로 된 단군의 부친 환웅 (桓雄)과 그 부하들은 하늘로부터 조선 땅에 내려 와서 곡식 재배와 질병 치료, 형벌 제도, 도덕 규범들을 가르쳤다고 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이를 기원 전 24 세기에 있었던 일로 전하여 왔다. 단군 신화 외에도 조선의 건국 신화, 전설은 여러 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사》가 오직 기자 전설만 그대로 옮겨 놓고 있는 것은 아마도 조선의 전설은 기자 전설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오늘 우리는 《단군 조선 왕국》이 우리의 첫 국가였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신화나 전설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 자체가 맑스주의 사가들의 할 일이 아닌 것이다.

2

《전 세계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 3국 이후의 중세 력사 서술에서도 그 첫 시기 수백 년간의 력사를 삭제했으며 대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들을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완전히 흑백을 전도하고 있다.

3국의 건국 년대를 늦잡는 것과 기원 후 수세기 간의 대일 관계, 13~14 세기의 고려-몽고 관계, 그리고 중세기 우리 인민들의 반침략 전쟁의 서술에서 그 대표적 실례들을 들 수 있다.

《전 세계사》는 3국의 건국을 4 세기로 늦잡음으로써 기원 전 2 세기 말 고조선의 멸망 후 이 때까지의 력사를 중국 군현의 력사로써 대체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바로 우리 력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봉건 국가들이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던 시기이며 동시에 이 나라 인민들이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마침내 이를 종국적으로 청산해 버렸던 시기인 것이다.

압록강 중류에 자리잡고 있었던 고구려는 고조선의 계승자로서 기원 전 1 세기 중엽부터 강대한 정치 군사적 력량으로 장성하였고 이 시기에 벌써 비류(沸流), 행인(荇人) 등의 린접 《소국(小國)》들을 정복 또는 통합하면서 압록강 류역 일대를 장악하였고 중국 군현들에 계속 타격을 가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고구려는 광대한 령역과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국가였다. 이 시기의 고구려 유적에서 선행한 고조선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강철 제품들이 출토되는 것은 당시 이 나라 생산력의 높은 수준을 방증하여 주는 것이다.

백제 국가는 기원 1 세기 한강 하류를 근거지로 하여 그 북쪽의 락랑군과 대치하면서 진국(마한)의 령토를 잠식하고 있었다. 2 세기까지 백제는 반도 서남부에서 광대한 령역을 차지하는 국가로 되였다.

반도의 동남부에서는 2 세기 중엽까지에 신라 국가가 형성되였다. 신라의 건국 과정도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린근 《소국》들의 정복과 통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선의 사서 《삼국 사기》는 보여 주고 있다.

《삼국 사기》는 고구려, 백제는 부여 계통이며 신라는 《조선》, 즉 고조선의 유민이 세운 나라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 서술은 3국 인민들이 고조선, 부여, 진국(마한) 등 우리 고대 국가 인민들의 후예들이며 그 생산력과 문화의 직접적인 계승자였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승성에 관하여서는 다른 문헌 자료 및 고고학적 출토품으로써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3국은 국가 형성 과정에서 고대 국가들보다 한 계단 높은 봉건 체제를 갖추었다.

3국 형성의 이러한 력사 과정을 전연 무시하고 나선 《전 세계사》는 밑도 끝도 없이 《기원 313년에 옛 종족 동맹으로부터 형성된 고구려는 반도의 북부와 남만주의 린접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346년에 발생한 백제는 서남부를, 356년에 형성된 신라는 동남부를 차지하였다.》(3권, 47 페지)라고 쓰고 있다. 《전 세계사》가 고구려의 건국을 313년으로 잡는 것은 고구려 제 15 대 왕 미천왕 14년에 있었던 고구려에 의한 락랑군의 종국적인 박멸을 념두에 두고 쓴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백제는 그 제 13 대 왕인 근초고왕 원년(346년)으로, 신라는 그 제 17 대 왕인 나물왕 원년(356년)으로 각각 그 건국을 잡은 것이다. 고구려에 대하여 말한다면 조선 력사를 깎아 버리기에 광분하였던 일제 어용 학자들도 감히 그 건국 년대를 1 세기 이후로는 내려 잡지 못 하였던 것이다. 백제와 신라의 건국 년대에 대해서는 일본 부르죠아 사학자들이 내놓은 설과 《전 세계사》의 년대는 신통히도 부합된다. 일본 부르죠아 학자들은 백제의 13 대 왕인 근초고왕과 신라의 17 대 왕인 나물왕의 이름들이 중국의 사서들의 기록에 나타났으니 확실하다든가 또는 이 때부터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설정되든가 하였으니 3국을 이 때부터 국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가 창건을 보면 왕명이 본국 사서에는 있으나 타국 문헌에 알려져 있지 않는 나라는 아예 력사에서 말살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또 몇 십 대 왕이든지 그 이름이 타국 문헌에 기록된 왕이 그 국가의 창건자로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리하여 결국 《전 세계사》는 조선의 고대 국가들을

무시한 데다가 다시 그 후 시기 수세기 간 조선 사람들의 나라는 없었다고 론단함으로써 우리 력사를 무려 근 1, 000 년이나 공백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 세계사》의 기원 전후 시기 이후 조선의 대일 관계 문제로 넘어 가자. 우리는 여기서 4~5 세기 일본의 남조선 일부 지역의 강점을 운운한 것을 보게 된다. 이것도 일제 어용학자들이 일본의 조선 강점을 력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조작해 낸 소위 《미마나의 미야께(任那日本府)》설, 즉 임나(任那) (조선 반도 남쪽 락동강 류역의 작은 봉건 국가인 가락 또는 가라를 가리키는 말) 땅에 《미야께(일본의 통치 기관)》를 설치했다는 헛소리의 반복이다. 이 허망한 《미마나의 미야께》설은 일본 침략자들이 지난 세기 조선 침략을 개시하던 시기부터 그 어용학자들이 줄곧 떠들어 왔다.

《미마나》설은 한마디로 말하여 4~5 세기 전후 시기까지 일본 렬도 내에 존재했던 조선 계통 《소국(小國)》들을 통합하기 위하여 장차 일본을 통합하게 되는 국가의 세력이 이 소국들에 설치하게 된 《미야께》를 마치 남조선에 설치한 것으로 엉뚱하게 바꾸어 놓은 날조이다.

력사적 사실은 기원 후 수세기까지 조선 반도에서 건너 간 이주민들이 일본 국가 형성과 문화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기원 전 오랜 시기부터 이주민 집단이 조선 반도에서 일본 렬도에 건너 갔던 것은 일본 고문헌들에서 많이 말하고 있다. 3 국 성립 이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그치지 아니 하였다. 우리의 이주민 집단은 거기서 수세기 간 독립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자기들의 고국인 3 국과도 일정한 련계를 가지였다.

피아의 고문헌들과 유물들은 이러한 관계를 전하고 있다. 일본 렬도 내에서 기원 후 여러 세기를 두고 《소국》들의 분립 상태가 존속하는 조건 하에서 조선 계통 이주민 집단은 정치 군사적으로 자기를 보위하는 수단으로 고국에서 하던 대로 산성(山城)을 쌓고 살았으며 자기의 본 고장의 이름을 그 거주지에 붙이였다. 이러한 산성은 우리 3 국에 고유한 것이며 일본의 원주민에게는 없는 것이다. 8. 15 전에 어떤 일본 학자도 조선의 3 국 초기(初期) 식의 산성이 북구주(九州)와 본주 (本州) 섬 서단에 6 개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세끼노 (關野) : 《일본의 건축과 예술 (상) 》 소재 《일본 건축사》 제 2 장 원시 시대 참조) 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 (最高)의 사서 《일본 서기 (日本書記) 》와 《고사기 (古事記) 》 (8 세기) 에 의하더라도 후에 일본 통일 국가의 중심지로 된 야마도 지방 (나라현) 에도 《쯔쯔끼》 (《쯔쯔》는 우리 말로 산이요, 《끼》는 우리 말로 성의 뜻) 즉 산성 속에 궁궐을 짓고 사는 가라 (가락)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일본의 유명한 신화의 하나인 이즈모 (出雲) 지방 (시마네현) 신화에 의하면 그 곳에는 본시부터 8 개 산곡 (山谷) 에 걸친 큰 오로찌(일본 말로는 뱀의 뜻) 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어떤 일본 학자의 설에 의하면 이 오로찌 이야기는 그 곳에 조선식 산성이 8 개나 있었으며 산의 릉선을 따라 오르내리는 산성벽이 멀리서 보면 뱀이 굼틀거리는 것 같아서 뱀의 이야기로 전하여졌다고 하였다. 《오로찌》라는 말 자체도 이 일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조선 말의 《어론치》 즉 대인(大人)이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 지방에도 산성을 쌓고 원주민과 대립하던 《소국》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정복하였다는 이 지방 최고의 주재자는 자기 고국인 신라에 래왕하였던 것으로 일본 고문헌들은 전하고 있다. 이즈모 지방에 신라 계통의 《소국》들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고사기》나 《일본 서기》 보다 좀 나중 (9 세기)의 저작인 일본 고문헌 《신찬 성씨록 (新撰姓氏錄) 》에는 《구다라 (백제) 》 사람들이 하리마 (병고 <兵庫> 현 지방) 에서

도 그들의 《습속》에 따라 산성을 쌓고 살았으며 거기서 큰 전쟁을 진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일본의 나라 (奈良) 현 석상 (石上) 신궁에는 칠지도 (七支刀) 라는 백제 칼 한 자루가 있다. 그 칼에는 천자 (天子) 로 자처하는 백제 임금이 《백병 (百兵) 을 물리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이 무기를 그 후왕 (侯王) 인 왜왕에게 준다는 내용의 명문 (銘文) 이 새겨져 있다. 백제의 후왕으로 자처하던 세력이 이 지방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 밖의 일본 고문헌들에 나타난 수다한 기록을 가지고 백제 계통의 《소국》이 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우리의 신라, 가라, 백제 계통 이주민 집단이 형성한 《소국》들은 이상에서 본 몇 개만이 아니였다. 오늘날까지도 일본 렬도 서부 일대에 《시라 (신라) 》, 《가라》 또는 《미마》, 《구다라 (백제) 》라는 말이 붙은 지명이 적지 않으며 또 이 나라 사람들을 조상신으로 하는 신사들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심지어 《일본 서기》, 《고사기》에 조작되여 있는 일본 황실의 계보 내에서도 조선 계통 사람들의 이름을 골라 내기는 그리 힘들지 않다. 일본 고문헌들은 이들이 그 때부터 일본에 귀화한 사람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것은 억지 강변이다. 아직 일본 렬도에는 귀화할 만 한 대상이 없었던 것이다. 조선 계통 《소국》들은 나중에는 마침내 일본 통일 국가에 융합되고 말았지마는 한때 그 세력은 몹시 강대해진 일도 있었다.

일본 부르죠아 력사가들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결국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은 한 둘이 아니다. 실례를 하나 들자. 쯔지(辻)라는 일본 학자는 자기의 저서 《일본 문화사》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 야마도(大和) 민족이 이세(伊勢) 지방에 세력을 부식하고 여기를 근거로 하여 차차 세력 범위를 확장하려고 하였을 당시에 이보다 앞서 이미 조선 지방으로부터 이즈모 (出雲) 민족이 건너 와 있었던 것이다. 이 민족은 이즈모 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그 세력이 자못 컸었다. …그 세력은 산음(山陰) 지방은 물론, 동방으로는…북륙(北陸) 지방에 미쳤고 남으로는 산양도(山陽道)에서 하리마 (播磨)를 복종시키고 다시 더 나아가서 이세, 야마도 지방에까지 뻗어 있었다.》 (우에든 책, 1 권 40 페지)

이러한 형편에서 일본 렬도 내의 통일 국가의 형성 과정은 원주민 계통 및 조선 계통 《소국》들의 정복 또는 통합 과정으로서 이루어졌다. 바로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는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반영되여 있다. 이 과정에서 야마도의 왕은 지방 《소국》들을 통제하고 수탈하기 위하여 《미야께》를 일본 렬도 내 각지에 설치하였다 하며, 한편 《미마나》 뿐만 아니라 《시라기》, 《구다라》, 《고마》 (일본 사람들은 고마를 고구려에 해당시키고 있다) 등 《소국》에도 이를 설치하여 공물을 받아 내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서는 《미야께》를 주관하는 관리인 《미꼬도모찌(宰)》가 미마나에 출입하면서 《신라》, 《구다라》, 《고마》의 《고니끼시》 (왕의 뜻)를 불러 놓고 꾸짖기도 하고 항복을 받기도 하였다고 기록되여 있다. 《일본 서기》가 말하는 이 《미마나》, 《시라기》, 《구다라》, 《고마》 등은 바로 일본 렬도 내에 있었던 조선 계통 《소국》들인 것이다.

이상의 모든 자료들은 기원 전후 시기 이후 일본 사람들이 조선 반도로 진출하였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조선 사람들이 일본 렬도에로 진출하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시기 조—일 관계의 진상은 바로 이러하였다.

후세 일본의 소위 국학자들은 자기 고문헌들의 불명확한 점들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천지 개벽 이래의 일본의 남조선 지배설을 제창하였다. 이 망설이 너무나도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대 일본의 어용학자들은 일본 고 문헌들의 기사를 제멋대로 읽으면서도 그

년대만은 다소 끌어 내림으로써 이를 좀 《합리화》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결과 조작된 것이 4 세기 말 이후 2~3백 년간에 아직 생겨 나지도 않은 일본의 통일 국가를 있는 것으로 날조하여 그것이 남조선을 식민지로서 《경영》했다고 하는 신판 《미마나의 미야께》설이다. 그것을 《전 세계사》는 최신판으로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인의 래습은 기원 4 세기에 특히 강화되였는데 이 때 그들은 지어 반도 남단의 크지 않은 부분 즉 가락 왕국 〈또는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하면 미마나 (任那)〉의 일부를 강점하는 데 성공하기까지 하였다.》 (2 권 578~579 페지)

《일본의 종족 귀족들은 미마나와 자기네들의 섬들로부터 임의의 시각에 조선 내의 국가들 간의 전쟁에 간섭할 수 있었으며 여러 번 신라에로의 침공을 조직하였다.》(3 권 49 페지) 등등.

《전 세계사》의 저자는 조선사에 대한 연구도 없이 그저 손에 잡힌 지난날 일본 사람의 어떤 책을 망탕 베껴 놓았다.

이것은 신중치 못 한 태도이다. 물론 력사 저술에서 남들의 많은 저서들과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데까지나 신중한 분석이 가해져야 하며 자료들의 취사 선택에서는 과학적 엄격성을 기하여야 한다. 항차 조선사에 깊은 연구가 없고 남의 책에만 매여 달리는 저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전 세계사》는 다음 시기인 660 년대 신라—당 련합군의 공격에 의한 백제 멸망 당시 일본 야마도 지방의 통일 국가가 백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병한 사실을 쓰면서 《일본의 통치자들은 반도에 많은 력량을 파견하여 〈미마나〉를 점령하고 백제의 전 령토를 탈취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백제의 주민들은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결과에 일본 군대는 패배하여 다만 적은 부분이 조국으로 도망쳐 갈 수 있었다. (663년)》 (3 권 50 페지)라고 하였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말도 제대로 옮겨 놓지 못한 것이다. 이 때의 일본군은 침략자로서 조선에 온 것이 아니였다. 이 출병은 당시 일본 왕정 내에서 정권을 좌우하고 있던 백제 계통 귀족들이 멸망에 직면한 자기들의 고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단행한 것이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백제 고국의 멸망은 그 정치적 지반을 위태롭게 하는 사변이였기 때문이다.

6, 7 세기 일본에 통일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 정권 내에 융합되여 들어 갔던 조선 계통 귀족들, 특히 백제 계통 귀족들의 세력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전기한 《신찬 성씨록》에 등록된 전체 일본의 성씨 1, 183 개 중에서 3 분의 1은 외국 계통이며 그 대부분은 조선 계통이다. 귀족 성씨들 중에서는 수'적으로도 사실 상 3 분의 1을 훨씬 넘는 비중을 조선 계통이 차지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통일 국가 체제 수립에서 최대의 사변으로 되는 645년 일본의 《대화 개신 (大和改新)》에서도 주동적 역할을 한 세력 중에서는 백제 계통 귀족들이 우세하였다. 《대화 개신》에서 반대파를 타도하고 주동적인 역할을 한 고향 현리(高向玄理)와 승려인 민(旻)과 정안(靖安) 등은 책략의 주모자들이였다. 개신 후에 현리는 국박사(國博士)로 되여 민과 함께 새로운 모든 법률 제도의 작성자로 되였다.

《일본 서기》에는 이들을 모두 《아야비또》라고 하였으며 《신찬 성씨록》에서는 《아야비또》는 《백제국 사람 다야가(多夜加)의 후손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7세기 중엽 일본 왕정 내에서 백제 계통 귀족의 세력은 우세하였으나 그 반대파 세력은 은연 중에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660년 백제 멸망은 일본 왕정 내에서 이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백제 계통 귀족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들에 의하여 제압 당한 반대파 귀족들의

세력 만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백제 지원의 출병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 출병은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으며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출병 실패 이후 백제 계통 귀족들의 자기 세력 유지를 위한 책동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였다. 《일본 서기》는 이를 반영하는 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660 년대 일본의 출병은 《미마나 회복》이나 《백제 령토의 탈취》를 위한 것이 아니였다. 이 시기 일본의 령토 문제를 놓고 본다면 본주 섬의 동북 지방의 대부분도 아직 이 야마도 국가의 장악 하에 들어 오지 않았으므로 일본으로서는 이 방면으로의 진출에 부심하고 있었던 때였다.

이런 형편에서 바다를 건너 조선 반도 남부에 새로이 령토를 확장하는 문제로서의 소위 미마나 회복 문제는 도저히 제기될 수 없었다. 사실 그러한 문제는 있지도 않았다. 이것을 소위 미마나 문제로서 체계화한 것은 후세의 영터리 없는 력사 위조자들이였다.

《전 세계사》는 이 영터리 없는 말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거기다 백제의 주민들이 일본 래원군에게 《완강하게 저항하였다》고 《신학설》을 첨가하였다. 이것은 자고로 어느 누구도 알지 못 하였으며 또 이야기한 일도 없는 《전 세계사》 저자가 새로 창작한 황당무계한 자기류의 력사이다.

백제 주민들은 이 때에 일본군과 손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신라—당 련합군이 워낙 강하였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는 않았다. 그 후 신라—당 련합군 내에서 모순이 첨예화됨에 따라 백제 유민은 마침내 신라와 손을 잡고 당 침략군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사실은 이러하였다.

다음으로 13~14 세기 고려—몽고 관계를 일별하자.

13 세기 30 년대부터 몽고 침략자와 대치하여 고려 인민은 40 여 년을 두고 그 어떤 외원도 받음이 없이 치렬한 반침략 투쟁을 전개하였다.

고려—몽고 간의 국가적인 관계, 당시의 표현 대로 한다면 《화친(和親)》 관계가 수립된 것은 13 세기 60~70 년대부터였다. 이 때의 고려—몽고 간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종전부터의 고려 주권의 유지가 그 전제로, 기초로 되고 있었다. 때문에 사서들은 이 관계를 《화친》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사》가 약 90 년간의 이러한 《화친》 관계를 《거의 백 년간…고려는 몽고의 기반 하에 있었다. 고려의 왕들은 비록 왕위에 있었으나 실제 상 나라의 일체 사무를 감독하는 몽고 총독에게 완전히 예속되였다》 (3 권 538 페지)거나 또는 몽고의 봉건 관리들이 고려를 통치한 것처럼 (우와 같은 책, 같은 페지 참조) 서술한 것은 이 때의 력사를 전혀 연구함이 없이 망탕 규정하고 드는 분별 없는 론단이다.

그러면 이 때의 사실은 실지 어떻게 되여 있었던가. 1231년에 있었던 제 1 차 침입이 《화친》으로 끝 난 것을 몽고 침략자들은 고려가 항복한 것처럼 제멋 대로 해석하고 그 이듬해에 고려의 중요 지방들을 통치할 임무를 가진 70 여 명의 《다로가치》 (몽고 관리의 뜻)를 파견하여 왔던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 왕정에서는 이들이 오자마자 모조리 처단하는 것으로써 대답하였다. 고려 몽고 전쟁의 제 2 차 이후의 전역들이 이로써 발단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약 40 년간의 전쟁이 다시 《화친》으로 끝 난 후 몽고는 감히 고려를 통치하려고 덤비지 못 하였다. 마지막 《화친》 성립 당시 얼마 간 고려 수도 개경에는 또다시 《다로가치》가 와 있었으나 량국 관계의 정상화에 따라 그 주둔군과 함께 철수하고 말았다. 그후 고려에 주로 래왕한 몽고인들은 고려 왕의 안해로 된 몽고 공주 일행과 몽고 사신들이였다. 고려 령토로 확보된 령역 내에는 한 사람의 몽고 장군도 관리도 없었으며 고려를 통치하는 기관은 여전히 종전의 고려 봉건 통치 기구였고 주권자는 여전히 고려 왕이였다.

몽고의 고려 내정에 대한 간섭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고려 왕이 몽고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다 하여 다른 고려 왕족으로 교체하려던 몽고의 음모는 고려 측의 반항에 봉착하여 번번이 실패로 끝났으며 이러한 음모에 가담한 반역자들은 고려 왕정에서 엄혹한 처단을 면치 못 하였다. 이 시기 고려—몽고 관계를 《전 세계사》가 혹심하게 외곡하게 된 것은 조선사에 조예가 없는 《전 세계사》의 저자가 고려—몽고 관계를 마치도 구라파에서의 몽고의 통치 관계처럼 착각한 데 기인한다.

13 세기 중엽에 몽고인들은 볼가강 하류에 이른바 황금 한국이라는 것을 세웠다. 그들은 루씨 땅에 그 기반을 들씌웠으니 루씨땅의 최고 주군(主君)은 몽고 한이였고 여러 공국들은 몽고 태수들이 관할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수백 년간에 걸쳐 루씨의 여러 공국들은 몽고의 기반 하에 있었다. 이 시기 고려의 경우는 상술한 바와 같이 루씨의 경우와 판이하였던 것이다.

《전 세계사》가 조선 중세사 서술에서 범한 일반적 착오는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싸운 인민의 빛나는 업적을 묵살하거나 심히 과소 평가하면서 침략자의 력사, 지배 계급의 력사를 서술한 점이다. 이것은 고려—몽고 관계에서도 완전히 그렇게 되였다. 다시 이것을 더 설명하기 위하여 좀 소급해서 고구려의 대외 전쟁에 관한 례를 들어 보자.

고구려는 이미 그 건국 과정에서 기원전후 시기부터 한 4 군, 그 중에서도 락랑군의 침략 세력을 구축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락랑군이 종국적으로 구축된 313년에 이르기까지에도 고구려는 한, 위, 진, 연 등의 중국 대륙에 궤기한 강대한 나라들을 상대로 수십 차의 전쟁을 계속하였다. 그 후 5 세기 초까지에 고구려는 외래 침략자들을 성과적으로 격퇴하고 료하 류역 이동의 만주 지역과 조선 반도의 북반부에 걸치는 광대한 판도를 령유하는 대강국으로 장성하였다.

589년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 나라 문제는 천하 만국에 대한 지배를 망상하면서 598년에는 30만의 륙해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다가 참패 당하였고 611~614년에 그 아들 양제는 《아비의 위업》을 계승하려다가 그 자신과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612년 전쟁에서 수 양제는 고구려를 반대하여 전투원 113만에 후방 부대까지 무려 300만의 대군을 출동시켰다. 륙군 전투 부대의 행군 서렬만 하여도 그 길이가 1천 40리에 달하였고 한편 함선의 총 연장이 수백 리라는 대해군이 동원되였다. 인류 력사는 이때까지 타국 침략에 이러한 대군이 동원된 실례를 거의 알지 못 한다. 우리는 오직 희랍—페르샤 전쟁에서 이와 대비될 수 있는 규모의 군대가 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 인민은 영웅성과 애국주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반도 내부에 깊이 침입하였던 30만의 적 선봉대가 불과 2천 700 명 밖에 살아 돌아 가지 못 하였던 한 가지 사실만으로써도 이 전쟁에서 침략군이 입은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였던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사》는 이 거대한 의의를 가진 반침략 전쟁과 이를 통하여 이룩된 인민의 빛나는 애국 전통을 불과 몇 줄 내에 무책임하게 처리하였으며 전쟁의 과정과 고구려 인민의 투쟁 및 그 성과를 왜소화하였다.

고구려—당 전쟁도 644년부터 수십 년간 계속되였다. 그러나 《전 세계사》는 이 전쟁을 아주 사소한 사변으로 묘사하였다. 례컨대 645년 고구려의 안시성 군민들이 진행한 영웅적 투쟁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그 대신 당 나라가 《남만주의 고구려의 령토를 점령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3 권 49 폐지)라고 있지도 않은 허황하기 짝이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였다.

고구려 인민들의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은 668년 나라가 신라—당 련합군에 의하여 망한 후에도 줄기차게 계속되였다. 그들은 신라 및 백제 인민들과 함께 침략자들을 우리 땅에서 구축하기 위하여 항전을 계속하였으며 676년에는 조선 반도에서 침략군을 구축하였다. 만주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들은 여러 성들에 의거하여 항쟁을 계속하였고 마침내 발해국을 창건하였다. 발해는 당 세력을 료서(遼西)로 구축하고 8 세기 초에는 고구려의 고토를 거의 완전히 수복하였으며 200 여 년간 《해동 성국(海東盛國)》의 이름을 떨쳤던 것이다. 그러나 무지한 《전 세계사》 저자는 발해를 고구려 유민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만주 국가》로 무책임하고도 란폭하게 처리하고 말았다. (3 권 300 폐지 참조)

8 세기 이후 우리 인민들은 고구려를 포함한 3 국 인민들의 애국적 전통을 계승하여 남북으로부터의 강대한 외적을 반대하여 불요불굴의 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 세계사》는 3 국 이래의 모든 우리 중세 인민의 영웅적인 업적들에 대하여는 고구려 인민의 반침략 전쟁에 대한 서술과 같이 례외 없이 왜소화하고 외곡하고 있다.

우리 중세사의 전 과정에서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한 투쟁이 언제나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국내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도 쉴사이 없이 전개되였다. 이 투쟁들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 력사의 주요 구성 부분이다. 9~10 세기 초의 약 100 년간과 12 세기 이후의 1 세기 반에 걸친 대농민 폭동들은 우리 중세사의 가장 빛나는 장면들이다. 그러나 이 사변들도 《전 세계사》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나 몇 마디 말로써 스쳐 지나 가고 말았다. 어떻게 되여 력사를 이렇게 서술하게 되였는가. 이것은 《전 세계사》의 저자가 과거의 식민주의 학자들의 서적들에 의거하였고 또 그것을 베껴 놓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거기에서는 인민들의 반침략 투쟁이나 더우기 계급 투쟁은 서술할 리 만무하다. 바로 불행한 일은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세사에서 인민들의 영웅적 항전이나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끊임 없이 전개되였던 계급 투쟁들이 전혀 무시되였던 것이다. 만약 이렇게만 력사가 서술된다면 어떻게 이것을 인민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인민들이 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업적을 젖혀 놓고서는 조선 중세 인민사를 서술할 수 없다. 력사에서 맑스주의 원칙—당성의 원칙과 력사주의 원칙은 자기 나라와 타국의 력사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 력사에서 적용되여야 한다. 이렇지 않고 타국 력사에서는 이 원칙을 내던져 버리고 신중한 연구 없이 력사를 사실에 어긋나게 되는 대로 외곡하거나 과거의 왕조사나 식민주의 력사서들을 그대로 베낌으로써 인민의 력사를 무시하고 만다거나 하는 그러한 조폭한 저술 활동은 우리 맑스주의 사학가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전 세계사》는 근세사에서도 엄중한 착오를 범하고 있다. 《전 세계사》 저자는 근세사 서술 초두에서 우리 나라에서 부르조아 개혁의 첫 시도였던 갑신(1884년) 정변을 일본인들이 조작하고 일본인들이 수행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으며 이와 함께 조선의 부르조아 개혁 운동자들은 모두 일본 침략자의 주구로, 친일파로 규정해 놓았다. 이것도 사실을 완전히 전도한 큰 착오다.

맑스-레닌주의는 그 어떤 사회 사상이나 운동을 일정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상응하는 합법칙적 현상으로 본다. 갑신 정변의 지도 사상으로 된 개화 사상과 정변을 지도한 개화파들의 개혁 운동도 바로 봉건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 발생기의 합법칙적인 력사적 과정을 반영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7 세기 후반기~18 세기에 걸쳐 사회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상품 화폐 관계가 확대 발전되여 갔고 이것은 붕괴되여 가고 있었던 리조 봉건 통치 체제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였다. 19 세기 이후 봉건 통치 체제는 일층 약화되였고 봉건적 신분 제도에도 균렬이 생겨 났다. 상품 화폐의 류통은 농민층 내부에서 일정한 분해 작용을 일으키게 하였다. 몰락하는 농민들은 종전과

갈이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여 인신적으로 타인에게 예속되는 일이 극히 드물게 되였으며 《자유》롭게 된 농민들은 도시에로 흘러 들거나 광산 지대로 들어 갔다. 고용 로동을 관청들에서도 광범히 사용하게 되였다.

부역 밖에 몰랐던 제반 국가 경리의 운영과 광업, 수공업 등의 생산 부문에서 고용 로동을 채용하게 된 것은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이 한 극에서는 《자유》로운 로동력이 조성되고 다른 극에서는 창성하는 상업 자본의 산업 자본으로의 전화 과정이 완만하게나마 진행되였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우리 력사에서 자본주의 렬강들에 대한 개항이 있기 오래 전부터 볼 수 있다.

즉 18 세기 후반기부터는 금, 은, 동광들에서 자본주의적 경영 형태들이 출현하였다. 이 시기 우 정규(禹禎圭)라는 관리는 왕에게 《땅이 없이 농사를 못 짓게 된 백성(無土不農之民)들로 하여금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이 경영하는 광산들에서 일하게 하는 제도를 세울 것》을 제의한 바 있었다. 그의 제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새로운 광산 경영은 봉건 국가로부터 계속되는 탄압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새로운 요소의 장성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아 내지 못 하였다.

1858년에 이르러서 함경도 암행 어사는 자기의 견문을 왕에게 보고한 가운데서 《매개 금, 은, 동 광산들에는 수천 명의 일'군들이 모여 들고 일용 백물(日用百物)이 없는 것이 없으며 읍내 부호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는 일이 비일 비재이며 1천 척이나 되는 깊은 광갱(鑛坑)들을 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시기 상업 자본의 장성과 그 산업 자본으로의 전화 과정은 광업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일어 나고 있었다.

18 세기 70 년대 말에 봉건 정부에서 엽전 100만 량을 주조할 때에 많은 상인들이 이에 투자하였다. 대상인 오 한주(吳漢柱)는 19 세기 초에 유기(鍮器) 매점을 하여 막대한 돈을 모았고 19 세기 50 년대에는 정부로부터 화폐 주조 청부를 맡고 자기 자본으로 원료와 연료를 구입하고 로동력을 사서 20만 량을 주조하였다. 늦어도 19 세기 50 년대부터 이름 난 평북 운전군 청정리의 납청(納淸) 유기는 자본주의적 경영 방법으로 생산되였다. 자본가인 경영주들은 매 사람이 2~3만 량의 자본을 가지고 설비와 원료, 연료를 장만하였고 로동자들은 8 개의 공정에서 각각 자기 맡은 일을 수행한 대'가로 경영주로부터 임금을 받았다. 매개 수공업장의 규모는 작았으나 제품의 판로는 전국적이였다. 보부상들이 다른 상품들과 함께 이를 전국 각지로 날랐다. 수공업의 다른 부문들, 례컨대 비단 생산과 같은 부문에서도 사정은 류사하였다.

상품—화폐 관계의 장성과 새로운 자본주의 요소의 발생 발전은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일층 강화하였다. 19 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국 각지에서는 농민 폭동의 거세찬 파도가 휩쓸었다. 봉건 통치배들은 사태를 수습하는 데 무능하였다. 절박하고 긴장한 봉건 통치의 위기는 계속하였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낡은 것을 대담하게 개혁하고 새로운 근대 사회를 건설하려는 지향이 당시의 복잡한 정국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봉건 통치의 질곡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대상인들과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었던 중인 계층의 영향이 정계에서 큰 작용을 일으키게 되였다. 바로 중인 출신들인 류 대치(劉大致), 오 경석(吳慶錫) 등은 개화 사상의 초기 대표자들이였다. 이들은 1860~70 년대에 선행한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낡아 빠진 봉건 통치를 청산하고 나라를 근대적 방향으로 시급히 변혁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제기하였다. 이 개혁 사상을 지지하여 나선 선진적 활동가들은 개화파라고 불린 정치적 력량으로 형성되였는바 그 지도자는 김 옥균(金玉均), 홍 영식(洪英植) 등이였다.

개화파의 정치 활동은 특히 1876년의 개항 이후 우리 나라가 반식민지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나라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시급히 근대적 발전의 길을 개척하려 한 더욱 애국적이고도 급진적인 성격을 띤 운동으로 되였다. 사태의 발전은 바로 이렇게 되여 있었다.

그러나 《전 세계사》는 갑신 정변에서 력사적으로 준비된 사회 경제적, 정치 사상적 제 요인을 전혀 묵살하고 갑신 정변과 이에 선행한 부르죠아 개혁 운동을 일본 침략자들이 조작한 것으로 력사를 완전히 외곡하였록.

뿐만 아니라 갑신 정변 자체와 관련된 서술에서는 완전히 흑백을 전도하고 다음과 같이 론술하였다.

《…일본인들은 청국에 의거하고 있은 조선 정부를 전복하고 자기의 주구들로써 구성되는 새 정부를 수립하려고 결정하였다.

그들의 계획에 의하면 궁중 변혁은 일본인들과 결탁한 조선 량반(귀족)들을 원조하여 실현하기로 되여 있었다. 이 때에 <개화당>이라고 자칭한 젊은 량반 그루빠가 형성되였다…1884년 12월 4일 일본군 부대는 왕궁을 점령하고 왕을 포로로 하였다. 주권은 <개화파>에 넘어 가고 그 지도자들은 김 옥균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였다.》(7 권 276 페지) 이것이 갑신 정변과 관련된 서술의 거의 전부이다.

여기에서는 갑신 정변 행정이 일본 군대에 의하여 진행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개화 활동가들이 일본 침략자들의 도구이고 그 침략을 방조한 주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갑신 정변이 일본 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작되였으며 김 옥균이 친일파란 말인가. 자기 력사를 남보다 더 잘 아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누구도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실로 황당무계한 론단이다. 개화파의 정치 활동이 가지는 애국적 반침략적 성격을 부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다. 물론 개화파가 신중히 타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곤난한 조건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화파의 국가 정변 준비는 1882년 이후 반동적 만청 통치층의 무장력이 우리 나라 내정을 간섭하며 조—청 반동의 련합 세력이 국내의 온갖 진보적 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조건에서 수행되게 되였다. 따라서 개화파는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선 침략에서 대립하고 있는 청일 간의 모순, 특히는 일본 세력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리용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당시의 조건 하에서 부득이 취하게 된 개화파의 이런 전술적 립장이 결코 개혁 운동 자체의 성격과 의의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 개화파는 종시 일관하여 애국적 립장에 확고히 서 있었다. 김 옥균은 정변을 앞둔 9월 29일(양력 11월 16일)에 류 대치를 방문하고 《가령 일본 정부의 원조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의사로 볼 때에는 우리 나라 사태가 절박하기 마치 배수 무량(背水無梁)과 같은지라 일본 정부의 거동을 기다릴 수 없는 터이다.》라고 말하였다. (김 옥균 《갑신 일록》(11월 16일 조) 홍 영식은 정변 직전에 《우리 나라는 이제 만일 개혁이 없이 수년을 경과하면 그때에 가서는 변혁된다 하여도 다시는 조선인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은 어렵게 될 것 같은 것이 념려가 되여 견딜 수 없다.》(《조선 교섭 자료》 상권, 291~292 페지)라고 개화파들의 애타는 심정을 토로한 바 있었다.

물론 개화파들의 정변 준비의 불철저성, 우리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이 아직 미약하였던 력사적 제한성 등 정변이 실패할 수 있는 주객관적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화파들이 조국의 독립과 진보를 위한 견결한 립장에 시종 확고히 서 있었으며 그 립장에서 개혁을 주체적으로 준비하였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상의 자료들이 이를 확증하고 있다. 1884년 10월 17일(양력 12월 4일) 우정국(郵政局) 락성연에서 정변의 첫 봉화를 올리고 다음 날 개화파 내각을 조직하고 나라의 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예견한 정강을 공포하고 개혁 사업에 착수한 것은 모두 개화파 자신에 의해서 수행된 일이였다. 그리고 개화파는 실제 상 정권

을 장악한 후에 청군의 반격에 대비하려고 왕궁 호위를 위해서 일본군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갑신 정변과 관련된 너무도 초보적인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정변 실패 후의 사실을 들어 보더라도 그것은 《전 세계사》의 그릇된 론단을 반박하고 있을 뿐이다.

정변이 실패하자 일본 공사 다께소예는 조선 경찰로부터 추격을 받게 된 김 옥균 일행이 인천 일본 령사관으로 피난하려는 것마저 거부하였으며 체포될 위험에 직면하여 해외로 피신하려는 그들이 일본 기선 《천세환(千歲丸)》에 올라 타는 것까지도 거절하였다. 심지어 선장과의 별도 교섭으로 승선할 수 있었던 김 옥균 일행에 대하여 다께소예는 퇴선을 강요하였다. 오직 선장의 인도적 조치에 의해서 비로소 김 옥균 일행은 일본으로 망명할 수가 있었다.

김 옥균 일행이 일본에 망명한 후 일본 정부는 그들의 정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박해를 계속하였다.

그것은 김 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지도 인물들이 의연히 개혁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나라의 자주 독립과 부강 발전을 기도하는 유력한 정치적 력량으로 되여 있었으며 침략자들의 무서운 적수로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김 옥균의 재거 시도가 다시 적발되자 일본 정부는 1885년에 그를 일본 령토에서 강제 퇴거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후 려비가 없어 떠나지 못 하고 요꼬하마(橫濱)에 머물러 있던 그를 태평양의 절해 고도인 오가사하라(小笠原)에 비법적으로 정배 보내였고 2년 후 다시 북해도 벽지에 강제 이주시키고 감시하였다. 일본 당국은 이렇듯 굴욕과 수난의 생활을 그에게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 옥균 등 개화파 지도자들을 살해할 음모까지 계통적으로 꾸미고 있었다. 일찌기 1885년 그의 일본 망명 직후에 일본 외무상 이노우에(井上)와 일본 주재 청국 공사 서 승조(徐承祖) 간에는 김 옥균을 중국 상해 조계로 유인하여 살해할 데 대한 밀모가 진행되였었다.(《중일 교섭 자료》 권 9,1 9~25 페지 참조) 결국 이 흉모는 1894년에 가서 조선, 일본, 청국의 세 나라 반동파의 공모 하에 실현되였다.

이상의 모든 사실들은 갑신 정변이 일본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기초하여 일어 난 부르죠아 개혁의 시도였었으며 김 옥균 등의 개화파 지도자들이 친일파가 아니라 열렬한 애국자들이였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력사적 현상을 그 사회 경제적인 기초와 분리하여 형이상학적으로 보는 사람들만이, 그리고 당시의 사료에 대하여 아무러한 지식도 없이 력사에 경솔히 대하는 사람들만이 갑신 정변을 일본인들의 조작으로 개화파의 지도자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망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 세계사》에서는 1919년 3.1 인민 봉기까지에 이르는 우리 나라 부르죠아 민족 운동 시기의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하여도 적지 않은 오유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엄중한 착오는 1920 년대와 30 년대의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전개된 조선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 력사를 《전 세계사》가 자기의 서술 대상에서 제거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세계사에서 조선 관계 부문을 력사적으로 체계화하는 립장에서나 그 시기 세계사 전체를 편찬하는 립장에서나 다 같이 허용될 수 없는 가장 엄중한 착오로 된다.

《전 세계사》 9 권에서는 1924~1939 년간의 세계 각국의 력사가 서술되고 있다. 이 시기는 10월 혁명 직후의 전 세계적인 혁명적 앙양기(1918~1923)에 뒤'이은 자본주의의 일시적 부분적 안정기(1924~1928)와 1929~1933년 세계 경제 공황 시기 및 제 2 차 세계 대전 준비기(1934~1939)를 포괄한다.

이 시기 세계사의 기본 특징은 국제 독점 부르죠아지들이 파시즘의 수립과 제국주의 전쟁의 도발에서 첨예한 모순의 출로를 찾게 됨과 관련하여 자본주의 국가 근로자들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더욱 치렬한 투쟁의 불'길이 일어 났다는 데 있다. 이러한 력

사 발전의 기본 특징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이미 우리 나라에서 부르죠아 민족 운동 시기가 종말을 고하고 로동 계급이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지도적 력량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력사적 시기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쏘련 및 중국에 대한 전쟁 준비와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 수행에 따라 식민지 통치가 류례 없는 횡포성을 띠게 된 환경 속에서 로동 운동이 맑스-레닌주의 기치 하에 급속히 장성하였고 그 영향으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 비상히 고조되였다. 이 시기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은 청소한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급속히 발전하였고 인민 대중은 전고 미문의 간고한 정세 하에서도 그가 계승한 애국주의 전통과 혁명성을 남김 없이 발휘한 것으로 특징적이다.

1925년 조선 공산당의 창건, 1926년 대중적 반일 시위 투쟁으로 전개된 6.10 만세 운동과 그 이후의 로동 운동 및 농민 운동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이 일제의 야만적 폭압 속에서도 급속한 상승적 발전을 이루고 있었음을 확증하는 것이였다.

특히 1920 년대 말 1930 년대 초의 혁명 운동은 그야말로 철통 같은 일제의 폭압을 박차고 일어 난 거대한 혁명적 앙양이였다. 이 혁명적 앙양의 시초로 된 것은 1929년의 원산 총 파업 투쟁이였다. 원산 일대의 산업 운수를 완전히 마비시켰고 일제 경찰의 테로적 탄압을 무릅쓰고 로동자, 농민, 학생을 비롯한 각 계층 인민들의 지원과 쏘련, 중국, 일본, 불란서 등의 로동자, 사회 단체들의 국제적인 련대성 속에서 수개월간이나 영웅적으로 전개된 이 투쟁은 각지 로동자, 농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전국 각지에서 로동자들의 전투적인 파업과 시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 났다. 1930년의 신흥 탄광 로동자들의 파업이 폭동적 투쟁으로 발전한 이후 로동자들은 《신흥 동무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전국 도처에서 시위와 폭동을 일으키자!》라는 구호 하에 각지에서 격렬한 폭동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 운동의 특성은 농민과 학생들이 로동자들의 폭동적 투쟁에 호응하여 전투적으로 진출한 것이였다. 1930년 함남 단천군 농민 3천 여 명이 일제 군청과 경찰을 습격한 것을 비롯하여 폭동, 시위, 소작 쟁의 등 각종 전투적 투쟁의 파도가 함경도, 강원도, 전라도, 평안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를 휩쓸었고 간도 지방에서는 추수 폭동, 춘황 폭동과 같은 대규모적인 투쟁들이 전개되였다.

전국 학생들은 1929년 11월 전라도 광주에서의 조선인 녀학생에 대한 일본인 학생들의 모욕 사건을 계기로 《일제를 타도하자!》는 구호 하에 전국적으로 궐기하였다. 이 투쟁은 전국 방방곡곡의 학생들이 지어는 소학생까지도 일어 나서 싸운 전국적 반일 학생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 각지에서는 로동자, 농민 대중이 들고 일어 나서 무장한 적을 폭력으로 항거해 나섰고 온 나라는 혁명 투쟁으로 들끓는 도가니로 화하였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세는 우리 나라 혁명 운동이 더욱 높은 단계에로 이행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 거세찬 투쟁에 궐기한 인민 대중을 조직하고 군사적으로 준비시켜 무장 투쟁 단계에로 운동을 발전시켰다.

1932년에 우리 력사 상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자들에 의하여 령도된 인민 혁명 무력인 항일 유격대가 창건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일제가 대륙 침략을 계기로 파쑈 테로 통치를 류례 없이 강화하고 침략 전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과 만주에 수다한 정규군 사단들과 그 보조 무력을 집결시킨 것과 같은 극히 간고한 조건 밑에서 진행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령도 밑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일제가 침략 전쟁의 병참 기지로 전환시킨 조선과 만주의 국경 지대인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 압록강 류역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고 무장 투쟁과 전국의 혁명 운동을 확대 발전시키는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근거지들을 중심으로 항일 유격대는 인민 대중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거하면서 조선과 만주의 광활한 지역에서 적들의 군사 요새지와 성시들을 련속 습격하였으며 보천보, 무산 지구, 동흥진 등 조선 지역과 안도, 훈

춘, 동녕, 액목, 의란, 무송, 반석, 휘남 등 만주의 주요 현성을 비롯한 수 많은 군사 작전들에서 일제에게 거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일례로 1937년 6월 보천보—간삼봉 계선의 전투에서는 1천 500 여 명의 일제 정예군을 살상하였으며 1939년의 1 년간에만 하여도 적 3만 여 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항일 유격대에 의해서 거듭되는 군사적 타격을 받은 일제는 항일 무장 투쟁이 《국책(國策) 완수 상의 중대 문제》로서 제기되고 조선과 만주 통치의 치명적 타격으로 되였다고 비명을 올리였다. (《만주국 경찰사》 상 346 페지) 무장 투쟁의 승리적 발전, 근거지에서의 혁명적 제반 시책,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지도를 통하여 혁명적 영향은 전국 도처에 료원의 불'길처럼 파급되여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 계층 인민을 치렬한 반제 반봉건 투쟁에로 궐기 시켰다.

특히 1936년 5월 조국 광복회의 창건은 우리 나라 혁명 운동의 전반적 발전에서 거대한 전환을 일으켰다.

조국 광복회는 전 민족의 힘을 단합하여 일제 식민지 통치를 전복하고 인민 정권을 수립하며 반제 반봉건적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혁명 강령을 제시하고 전체 조선 인민의 앞길을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투쟁 방도로써 밝혀 주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한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로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조선의 거의 전역과 중국 동북 일대의 조선인 거주 지역들에서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 급속히 확대되였으며 그 산하에 수십 여 만의 군중을 망라시켰다.

조국 광복회 강령을 투쟁 기치로 하여 서울, 평양, 함흥, 흥남, 청진, 라진, 원산, 신의주, 부산 등 산업 중심지들과 수다한 농촌 지대들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폭동과 파업, 소작 쟁의들이 끊임 없이 전개되였다.

이리하여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우리 인민의 투쟁은 맑스-레닌주의 기치 하에 그리고 일찌기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볼 수 없었던 큰 규모에서 조직된 군중적 토대에 기초하여 15 개 성상의 장기간에 걸쳐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1930 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우리 나라 력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여 조선 인민의 혁명 운동 사상(史上) 가장 높은 발전 단계를 의미하였으며 선행 시기 력사의 경험과 성과를 집성하여 발전시키고 8.15 해방 후의 새 력사를 준비하는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1930 년대에 있어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혁명적 지향을 가장 철저하고 명백하게 구현한 세계사의 구성 부분이다.

1920~1930 년대 로동 계급을 선두로하는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는 조선 력사의 체계화에서 떼여 낼 수 없는 부분이며 따라서 《전 세계사》에서 응당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전 세계사》가 조선사를 체계화함에 있어서 봉건 왕조나 부르조아지와 관련된 시기의 력사는 서술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령도한 인민 운동의 력사는 무시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원칙적 오유를 범하게 된 리유를 우리는 리해할 수 없다. 이것은 《전 세계사》 저자들이 력사 서술에서 생명으로 되는 당성의 원칙에서 리탈하였으며 동시에 력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사상으로써 인민들을 무장시켜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 과학의 기본 사명마저 저바린 것이다.

4

이 밖에도 《전 세계사》의 조선 관계 서술에는 여러 가지 오유들이 허다하다.

그 중 몇 개만 들어 보자.

《전 세계사》 조선 관계 서술의 첫 머리, 원

시 시대에 관한 서술에서는 조선의 신석기 문화 유적이 평양 지방, 황해 남도의 남부, 서울 지방, 부산 지방 및 동부 조선의 끝(두만강 류역) 지방 등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그것을 지도에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2 권 576~577 페지 및 부록 지도 참조) 이것이 누구의 견해를 답습한 것인가도 비밀이 아니다. 1930 년대 일본의 어용학자들이 내 놓은 이 곰팡이 내 나는 견해는 이미 우리 학계에서 극복된 지도 오래다.

물론 외국인 필자들이 조선 원시 고고학에 깊은 연구가 없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이 남의 책을 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초보적으로 그 책의 저작 년대를 따져서 선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고학적 자료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 우리의 고고학계는 이 낡아 빠진 1930 년대의 일본 사람들의 견해를 매장해 버린 지 오래다. 조선 고고학에서 수십 년이란 세월은 길기 때문이다.

우리 고고학자들은 구석기 시대 유적을 발견하였고 구석기 시대를 이은 신석기 시대는 기원 전 5천년기부터 기원 전 2천 년 기말에 이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 도처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은 이미 상식으로 되여 있다.

다음으로 우리 고고학자들은 조선에서의 독자적인 청동기, 철기 문화의 존재 시기에 대해서도 이를 체계화한 지 오래다. 그러나 《전 세계사》는 이것도 역시 오랜 옛날의 일본인들의 낡은 《금석 병용기(金石併用期)론》을 수입하였다. 일본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금석 병용기(에네올리뜨)》란 금속 도구와 석기를 동시에 쓰던 시기라는 것이며 외부로부터 선진 금속 문화가 들어 와서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석기를 사용하는 상태에 있었으나 상층부는 주로 사치품이나 제기(祭器) 등으로 금속을 사용하였던 시기라는 것이다.

결국 이 자들은 중국 문명의 영향에 의하여 그 동방 지역에서 금속 문화의 려명이 시작되였다는 《문화 이동론》과 같은 황당무계한 외인론으로 력사적 사실을 처리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우리 고고학자들은 조선의 금속 문화가 독자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철기의 사용은 중국보다 결코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중국 학자 범 문란은 다음과 같이 썼다. 《철자의 옛 글'자는 〈銕〉로 썼으니 동방 이족(夷族)이 가장 먼저 제철술을 발명한 것이며 한족이 그것을 받아 들였다.》 《중국 통사 간편》 182 페지, 1955년 인민 출판사 판, 수정본 제 1 편) 여기의 동이족은 고조선을 포함한 것으로 리해되여야 한다.

《전 세계사》 조선 관계 저자들의 외인론은 이 책의 일관한 사상으로 되였다. 고구려의 건축술과 미술이 불교 수입 이후에 발전하였다(3 권 48 페지 참조)는 것도 그 실례의 하나이다. 고구려 고분의 축조 기술과 그 벽화의 주제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도리여 거기에 불교적 색채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곧 알 수 있는 것이다.

근세사 서술에서 《전 세계사》가 범한 또 하나의 엄중한 착오는 10월 혁명의 국제적 의의와 동방의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에게 준 그 영향을 몰각하고 만 점이다.

《전 세계사》는 1919년의 3.1 인민 봉기 서술에서 10월 혁명의 영향에 대해서는 몇 마디 수식어로써 지나 가면서 그 대신 첫날부터 변절하였던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역할만은 일방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14 세기 중엽의 정치가 신 돈(辛旽)을 신 우(辛禑)로 혼동한 것이라든지(3 권 538 페지), 구월산(九月山)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중간에 있다고 하여 세계사의 저자가 자기 마음 대로 조선의 산을 딴 지역에 들고 다니는 것이라든지(4 권 687 페지), 대원군을 《북인(北人) 당파》의 령수였다(6 권 442 페지)고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등 허다한 사말적 오유들에 대하여는 구태여 더 들지 않겠다.

이것은 얼마나 《전 세계사》의 저자가 조선

력사의 초보적 상식도 없으며 또 무책임하게 되는 대로 력사를 다루는가 하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 ❊

이상에서 《전 세계사》 조선 관계 서술에서 나타난 오유들 중 주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우리가 지적한 《전 세계사》의 수다한 오유들은 거의 모두가 력사적 사실들을 란폭하게 외곡한 것이다.

어떻게 되여서 이렇게 허다한 착오들을 범하게 되였는가. 그것은 조선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 저자들이 의거해야 될 책에 의거하지 않고 과거 일본 침략자들의 책과 식민주의 력사 서적들에 의거하여 또 이것을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력사적 사실들이 황당하게 외곡되였다.

우리는 쏘련 과학원 이름으로 된 《전 세계사》가 이러한 엄중한 착오를 범한 데 대하여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력사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전 세계사》와 함께 세계 각국에 널리 분포될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과거 많은 나라 인민의 력사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어용 사가들의 외곡 날조가 혹심한 조건 하에서 쏘련 력사가들이 인민의 립장, 모든 인민의 력사에 진실로 신중하게 대하는 립장을 견지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다른 부문 사회 과학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력사 과학도 부르조아 력사학과의 투쟁의 파학으로, 그 온갖 외곡과 날조를 폭로 분쇄하는 위력있는 사상 투쟁의 무기로 될 수 있다.

우리는 《전 세계사》 저자들이 조선사 서술에서 범한 엄중한 과오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신중히 그리고 책임적으로 대할 것을 기대한다.

쏘련 과학원은 이 엄중한 과오로 말미암아 《전 세계사》 독자들에게 미치게 된 후과를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우리는 희망한다.

근로자 제 18 호 (루계 232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9월 20일 인 쇄 • 1963년 9월 17일

ㄱ- 330613 값 40 전